
第19回서울特別市議會(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0年12月13日(水) 午前10時
場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1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2. 2001年度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
-

審査된案件

1. 2001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2001年度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

(10時 43分 開議)

○委員長 崔明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서울特別市議會 제19회 定例會 제4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더 상임위 활동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 예산심의활동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실 줄 압니다.

그리고 政務副市長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市 예

산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총망라하여 일괄적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時 43分 開議)

1. 2001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서울特別市長 提出)

2. 2001年度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委員長 崔明玉;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年度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政務副市長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政務副市長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卓秉伍; 존경하는 崔明玉 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된 새천년 첫해인 2000년 한해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시고, 특히 이번 제19회 정례회를 통하

여 2001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1년 예산안과 14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예결위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빕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은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2002월드컵축구대회 준비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시정 각 분야의 주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 시의회에 심의요청한 내년 예산안은 수도 서울이 문화도시, 환경도시, 복지도시, 그리고 국제적인 중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가면서 아울러 건전재정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최근의 고유가 추세와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다소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세입추계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추구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2001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기초하에서 편성된 우리시의 2001년도 예산규모는 지방재정구조 개편전의 기준으로 할 경우 2000년 대비 2.1% 감소한 10조 3,801억원입니다만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 총 11조 3,51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가용재원은 사실상 증가없이 教育廳에 대한

전출금 규모가 약 9,712억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첫째, 시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데 최우선적인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저소득 시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 시민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시민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맑은 물 공급, 대기질 개선, 주택과 주차난 해소, 소음대책, 녹지공간 확대 등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와 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한강교량 등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며 수해 항구 복구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을 문화도시, 환경도시, 나아가 국제적인 중추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시립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등 서울을 21세기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 9호선과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착공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하철 환승,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교통소통을 촉진시키는 사업에도 재원을 배분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서울의 여건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 패션,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더욱 늘어날 외국관광객을 위해 공중화장실, 도로안내표지판, 간판 등을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내년에는 지하철 부채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채 상환재원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2001년은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하철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하철 부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내년에는 감채목적 예비비를 대폭 늘리는 등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하철 운영기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축재정의 기초하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아울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사업성과를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2001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투자방향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企劃豫算室長 金禹奭,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女性政策官 盧美惠, 建設安全管理本部長 崔在範, 情報化企劃團長 裴京律, 監査官 全長河,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産業經濟局長 林載五, 文化觀光局長 崔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建設局長 張錫孝, 住宅局長 梁甲,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올림픽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公報官 李哲秀, 市政企劃官 朴官燮, 市政企劃團長 金燦坤,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行政管理局長인 金在宗 局長은 현재 12월 15일 행사준비로 대외기관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도착되는 대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明玉; 政務副市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豫算室長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企劃豫算室長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企劃豫算室長 金禹奭입니다.

존경하는 崔明玉 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

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께서도 아까 인사말씀을 통해서 올해 예상되는 내년도의 재정여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내용은 같음을 하겠습시다만 편성기조 그리고 분야별 투자배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위원님들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국제 원유가의 인상추세,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각 경제연구전문기관에서 2000년도의 경제성장률과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2000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여러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최저치를 기준으로 했고, 내년도의 경제성장률도 가장 최저치를 적용해서 세입예산을 추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수요, 그리고 시정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데 중점적으로 배분했다는 그런 기조를 말씀드리고, 또 특히 내년도 예산은 지금까지의 투입 위주의 편성방법이었던 품목별 예산제도, 다시 말씀드리어서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총 얼마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편성체제에서 내년도의 예산안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량목표와 성과목표를 토대로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 어떠한 효과가 온다고 하는 것이 예산서를 통해서 바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또 위원님들이 연말에 가서 결산 심사를 할 때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이런 체제와 아울러서 내년도의 이 재원배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종전에 보호를 받던 대상자가 누락이 되거나 또 내년도 경기전망이 불안정함에 따라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틈새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부딪치고 있는 공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소음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 완화, 또 대중교통서비스의 질 개선문제,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그리고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특히 계획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배분을 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신규사업에 나열식 투자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조기에 서비스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소프트웨어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시 재정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우선적으로 업무추진비는 行自部の 실링보다도 38% 수준을 대폭 감축 편성함으로써 서울시가 긴축재정에 솔선 수범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부채는 시 재정의 운영에

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감채 목적 2000년도에 1,000억이었습니
다만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을 대폭 지하철부채 감축에 할애 함으로써 2,508억원을 감채목적 예비비를 증액 편성했고, 이
지원은 양대 지하철 운영공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
로 해서 시가 2001년도 중에 고이율의 순서대로 부채를 저감
하는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한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 드린 그런 예산편성
의 기초와 시스템의 변환, 그리고 건축 건전 재정의 운영 틀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원래 지방교육세가 신설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년도예산안은 올해예산에 비해서
2.1%가 감소한 그런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도중에 지금까지 국세였던 교육세, 각종국
세와 지방세의 부가세로 징수되었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서 9,712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규모의 예
산이 서울시의 가용재원에는 아무런 증감영향을 미치지 않으
면서 규모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예산
이 약 7.8%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 중에서도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이라든지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이라든지 산하공사에 대한 출
자 이런 것들을 제외할 경우에 시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
산규모는 총 예산규모의 56.6% 수준에 불과한 그런 외형적
으로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만 내실적으로는 매우 빈약한
재정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예산을 가지고 분야별로 어떻게 그러면 투자 배분을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선 시민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2000년 예산에 비해서 34%가 증가한 1조 415억원, 대폭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으로 4,922억원, 그리고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그리고 노인복지관 확충 등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1,402억,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 등 장묘시설 확충에 239억을 반영했고, 장애인 보호에 849억, 또 여성의 사회활동 기여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1,044억을 관련사업 분야에 투자를 했고, 시립병원 신...증축, 그리고 식품의 안전 공급 등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712억원을 반영했고, 사회복지관 운영 등 경상적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24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 분야에 순계예산규모의 7.5%에 해당하는 8,172억원, 그리고 교량 고가지하차도 등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에 3,513억원, 그리고 노후시민아파트를 정리하는 데도 18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 항구복구대책에 1,520억원, 그리고 종합방재센터 등 소방분야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에 2,860억, 그리고 서울을 맑고 푸른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한 분야에 순계예산의 14.4%에 해당하는 1조 5,528억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도 어떤 물량위주의 또 분산 식재방법에서 학교운동장을 지역공동체 운영에 의한 숲 가꾸기 이런 사업으로 목표를 대폭 보장해서 502억 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의 관리를 위해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513대를 확충하고 내년도에는 11 몇 이상도로에는 매일 1회 물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134대를 늘렸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등 깨끗한 물 공급 분야에도 7,664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와 자원재활용에도 1,061억을 계상을 했고, 상징적인 낙산복원사업에 계속추진, 그리고 미집행 공원 시설입지 부분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에도 소요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 한강 가꾸기 사업 등에도 330억원을 반영을 했고 교통분야에도 순계예산의 18.3%인 1조 9,785억원을 반영해서 교통소통의 개선, 다시 말씀드리어서 소프트웨어 개선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드컵 준비 등에도 차질 없이 대처하기 위한 소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기의 완전개통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환승편의시설을 대폭 보강을 하고, 또 역사와 전동차의 냉방화 등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여건을 개선하는데 소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벤처 중소기업의 육성, 창업지원을 위해서 2,0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의 국제수준에 알맞은 그런 각종 가로시설물의 정비 등을 위해서도 9,67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9,311억원을 계상을 해서 상암동 등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목동중심축의 기반시설, 그리고 주택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

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든 데 이어서 이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등 또 주거지역의 세분화 계획수립 등을 위해서 69억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특히 서울을 문화도시로 가꾸기 위한 문화분야에 예산의 3%에 달하는 2,99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지금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1%에 비하면 서울이 문화예술 진흥에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가 내년도가 되겠고, 또 다음 해 2002년이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월드컵 준비는 물론이고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한 서울의 관광인프라의 개발확충에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반영했고, 아울러서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 프로그램의 확충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주요 쟁점 분야별 투자내용을 대략 보고드렸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4개 기금을 운영하게 되는데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조 6,587억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규모인 1조 7,164억원에 비해서는 3.4%가 감소한 규모로 이것 역시 건축 운용하되, 필요한 부분 부분에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금별로 운영규모는 나중에 심의 시에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崔明玉 委員長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서울시가 21세기의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의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시정

의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면서 긴축예산의 틀 속에서도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 해서 재정의 구조, 시스템 자체를 100% 개혁을 했고, 그것을 기조로 해서 절약된 예산은 부채 감축에 투입하는 등 건전재정의 기조를 다져나가는 그런 기초 위에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저희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明玉; 企劃豫算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專門委員도 검토 보고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林頌; 專門委員 林頌입니다.

.....
(報告)

2001年度서울特別市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2001年度서울特別市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2001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과 基金運用計劃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明玉;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企劃豫算室長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충실한 자료제출을 통해서 예산심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朴來雨委員님.

○朴來雨 委員; 朴來雨委員입니다.

금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시기하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네, 安秉昭委員님.

○安秉昭 委員; 安秉昭委員입니다.

시유재산 목록과 재정확보를 위한 매각처분계획서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네, 趙養鎬委員님

○趙養鎬 委員; 趙養鎬委員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시 시비사업 중에 강남...북 간의 투자액수, 그 투자비율하고 25개 자치구별로 시비가 들어가는 액수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明玉; 네, 金鍾來委員님.

○金鍾來 委員; 金鍾來委員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편성부분에서 行自部와 동천체육관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保社部하고 협의를 거쳐 통보한 내용이 있죠?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崔明玉; 네, 李載震委員님.

○李載震 委員; 李載震委員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불용액 좀 보내주세요.

○委員長 崔明玉; 金判吉委員님.

○金判吉 委員; 金判吉委員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분포현황과 어린이집 투자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네, 林東奎委員님.

○林東奎 委員; 林東奎委員입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각 구청별로 돼 있는 소각장하고 음식물 재처리시설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현황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총용량이 얼마인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상황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수돗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데 그 동안 95년부터 현재까지 톤당얼마씩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사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明玉; 자료요청하실 분 더 계십니까?

네, 白懿宗委員님

○白懿宗 委員; 白懿宗委員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각 국별로, 또 사업별로 구분해서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네, 吳世根委員長님.

○吳世根 委員; 吳世根委員입니다.

서울시 교통시스템 신호 예산 있죠? 95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 우리 서울시가 서울경찰청에 주는 그 예산을 연도별로, 그리고 사업시행 종류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明玉;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이미 예산관계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심의의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하셨습니다.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이 기준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 답변에 문제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삭감의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그 자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참고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卓秉伍 副市長님과 企劃豫算室長님의 인사말과 제안설명에서 여러번 등장했던 성과주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市長에게 이 사실을 질문해야 되지만 지금 副市長하고 企劃豫算室長 나와 계시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서울시가 선택 도입한 성과주의예산제도는 IMF의 경험과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의 와중에서 서울시가 현행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를 산출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제도로 과감하게 방향전환 설정한 것이 돼서 서울시 행정체제의 개혁차원에서 과연 이 문제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기대와 우려속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단점은 달성하기 쉬운 성과목표만을 선별적으로 선호하거나 예산의 정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고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파벌주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정서속에서 성과관리의 핵심인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평가결과의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과거 60년대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도입됐다가 실패한 경험을 되살펴 볼 수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전면적인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보다는 금년도에 16개 기관, 2001년도에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는 점진적 운영방식으로 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가 이 제도의 도입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같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시범실시 없이 전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와 그 동안 검토, 추진해 온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의 편성권의 집행부인 市長에게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있는 서울시의회와는 사전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권력관계나 조직관리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안을 市長이나 우리 政務副市長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심의회가 본위원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서 예산편성에 필요한 정보 DB 등을 중심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서울시 집행부, 이에 비해서 지역민원과 정당활동 그리고 생업활동 등으로 바쁘기만 한 예결위원, 이 위원들이 10일 내지 15일 전에 위원들 앞에 놓여지는 예산서, 과연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우리 企劃豫算室長님께서서는 예산에 관한 경험이 한 10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들을 어떻게 제거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企劃豫算室長 金禹奭입니다.

崔明玉 委員長님께서 평소 이 제도의 도입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문제로 인식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지적한 대로 이것이 잘못 운영되게 되면 각 실...국이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성과가 높아지고 예산이 적게 투입되면 성과가 낮아지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사전에 인식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평가결과를 어떻게 수집해 갈 것이냐, 그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얘기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왜 그렇다면 점진적인 운영보다 전면적인 운영방법을 택했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2001년도의 예산에 처음 도입한 성과주의예산 이것이 완벽한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두 가지를 놓고 점진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일시에 전면 운영 하는 것 가지고도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또 전면적으로 도입하느냐 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은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면 상당한, 정말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실...국별 경영책임제, 그리고 목표관리제, 또 시민평가제, 이런 것들을 각각 별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우리가 기반은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목표관리제가 그것이고 실...국별 책임경영제라고 하는 그 기본 방향이 그런 것이고 시민평가를 통해서 만족도를 불만요인을 파악해서 그 불만요인을 해소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으로 바닥에 깔면 성과주의예산 제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리고 왜 전면적으로 도입했느냐 하게 되면 일단 그런 목표관리제나 실...국별 경영책임제가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앞으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도입을 하고 어떤 부서는 도입을 안 했을 때는 상당히 평가에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전면적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일단 과거 60년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성과주의예산제도와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MBO라고 하는 그런 목표관리제 또 사업예산제도 또 PBS라고 하는 기획예산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다가 실패를 하고

했는데 그 자체가 예산편성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일제시대부터 품목별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거기 관행에 젖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예산제도 하에서는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도입도 결국은 실패가 되었고, 또 기획예산제도라고 하는 것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사업별 예산제도도 결국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그대로 수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行自部가 준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품목별 예산제도를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예산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성과주의예산서를 하나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市政開發研究院 등 전문연구기관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전량목표, 성과목표, 그리고 사업계획에 어떤 위계질서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을 어떻게 가져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고, 평가방법,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했습니다만 상당한 실...국별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또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연구용역 과제로 지금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재정경제위원회의 저희들이 정책협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먼저 미리 설명을 드렸고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정치성에 대한 고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한 그런 부분은 일응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

니다.

왜냐 하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상당한 유연성,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연성이 있는 반면에 성과주의예산제도에서는 나중에 예산의 조정단계에서는 상당한 경직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시의회와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봐지고, 또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전문팀의 구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투자심사제도를 통해서 외부전문가와 시 내부 공무원들로 해서 심사를 예산 편성 전에 즉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심의, 이런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은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데 다만 이제 예결위에 와서 2·3일 가지고 충분한 심사가 과연 가능하냐, 저도 사실은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예결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예결위원회의 상설운영 그런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에라도 예결위원회의 운영기간을 정부처럼 보다 총괄 심의, 부처별 심의, 그 다음에 계수조정 심의, 이런 단계별로 거치는 그런 국회 예결위 운영기법을 일부 도입한다면 이런 문제는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 예결위원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아무튼 성과주의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판도라 상자는 아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일단 도입을 했으니까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來委

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來 委員;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공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明玉; 알겠습니다.

○金鍾來 委員; 金鍾來委員입니다.

市長께서는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시정은 시민본위의 열린 시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또 시장 판공비 또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공개로 해서 시정이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번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2001년도 예산 지역별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심사가 끝나면 자료를 주겠다고 했어요. 서울시정개혁이 무엇입니까? 시민위주의 열린 시정 구현이 시정개혁목표가 아닙니까?

더구나 지방재정 기본방향에도 생산복지 및 균형발전 촉진, 또 회계의 생산성 투명성 확보확인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공개하고 집행결과까지도 공개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서 시민본위의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희 특히 예산결산 심의위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기본지침을 따라야 되지요? 구속력이 있지요? 따르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고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는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선심성이나 행사성, 또 낭비성 예산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2001년 지역별 투자내용을 통해서 검토해 보고, 또 불요 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또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절히 편성되었는가, 또 지역적 생산적 복지 및 지역균형 발전에 차별화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조차 주지 않고 있어요.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가관인 것은 제가 지역별 투자내역을 주라고 하니까 담당관리계장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자료가 없다? 다시 채근을 하니까 ?제가 강서구에 사니까 강서구 것만 수결해서 주겠다? 지금 자료를 수결해서 줍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별 투자내역이 안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또 채근하니까 준다고 그래요, 이틀 후에. 이틀 후에 기다렸어요. 이틀 후에 와서는 못 준다고 그러니까.

왜 못 주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예산이 불균형 되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정말 우리 지역의 예산결산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정말 차별화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부당성이 있으면 재고시키는 것이 예산결산위원들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예산자료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결과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하세요,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企劃豫算室長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아까 실무진에 확인을 했더니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총괄적인 투자규모는 가능했었는데 區別로 세부사업 내역까지 제출을 하는 데는 나중에 그것이 공개가 되면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게 됐고 한데 나중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그 사업이 삭감되거나 조정되거나 했을 때 그런 우려가.....

○金鍾來 委員; 企劃豫算室長님,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답변 좀 줄이립니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들어간 자료는 아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金鍾來 委員;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서 두껍게 있죠? 지역 예산사항도 포함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사업의 적정성이 없어서 못했을 경우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왜 그렇게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유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합바지예요? 합법성 있는, 정당성 있는 얘기만 하세요. 왜 그렇게 기만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투자사업에 제대로 반영되면 다행인데 반영이 안 됐으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 전체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런 사전 정책자료로 생각하지 못하고 확정자료로 공개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의까지 끝나서 그 시점에 가서는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金鍾來 委員;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유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말씀대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어 많은 책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고 여기에서는 확정심사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두려워서 예를 들어서 공개 안 했다는 것이 얘기가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企劃豫算室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 유리알 같은 행정, 시민본위 열린행정 구현하겠다고 해요? 市長님의 목표는 그럴망정 하부조직에서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런 자료협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來 委員; 위원장님, 기본적인 자료까지도 안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따끔하게 일침을 내려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委員長 崔明玉;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서 본위원장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3, 4개월 동안 편성한 이 예산안을 불과 10일, 15일내에 우리가 이 많은 양의 많은 분야의 예산을 분석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줘야 될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불가능하다든지 내용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요청한 위원께 찾아가서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께서 이 자료와 유사한 이런 자료를 부탁한다라고 했을 때 제출해 주신다고 한다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녹음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소리하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죠 16일 넘겨버릴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예산심의 일정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일들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委員長 崔明玉; 金鍾來委員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金鍾來 委員;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산출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착하지 않으면 예산운영에 대한 기본질서나 방향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근거자료에서 과학적으로 계상해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볼 것 같으면 국가재정을 경제성장률을 6%로 봤는데 시세성장률은 7.5% 편성한 것은 과소 계산한 것 아니냐, 97년도에 보더라도 5.5% 경제성장률을 이룩했는데 시세성장률은 11%였고 96년도에도 7.6% 경제성장을 이룩했는데 시세성장률은 14%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체감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경제성장률이 6% 성장해서 시세율을 7.5% 잡은 것은 적게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 등으로 해서 2000년에 99년 대비해서 약 5.7%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예산에서 금년 예산보다도 7% 증가한 5,55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먼저 담배소비세가 증가한 것은 지금 현재 갑당 460원인데 510원으로 내년부터 50원이 인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시세분야가 경제성장률 추계치에 비해서 너무 낮게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데 金鍾來委員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세구조라는 것이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목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어서 소득탄력성이 높은 세목은 결국 저희들은 주민세 법인세할, 또 특별징수금, 법인세할하고 소득세할로 이렇게 구분이 직접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게 자동차, 그 다음에 경주마권세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받는 세목이라면 취득세, 등록세는 사실상 상당히 경제성장률하고 관련이 되면서도 그 텀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허가건수와도 연관이 돼 있고 경제성장률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상당히 소비심리 위축과도 다양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전 4년 중에서 최고 등록거래건수가 높았던 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년간의 평균거래건수 증가율, 이런 과거에 축

적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던 증가율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어떤 세목은 낮고 어떤 세목은 오히려 높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鍾來 委員;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좀 계십시오.

과년도 시세는 2000년에는 1,438억원, 내년에는 1,784억 이라는데 2000년 대비 24%나 많이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시세징수 7.5%로 잡았을 때 24% 편성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현년도 시세는 저희들이 예측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과년도 시세는 이미 채권이 확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과년도 시세는 얼마나 징수율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은 내년도 과년도 시세징수율을 지금까지 최고징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결산 때 좀 미달될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전 3년 평균징수율에 최고징수율의 2분의 1을 저희들이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좀 더 과년도 체납시세를 더 올리는 그런 노력을.....

○金鍾來 委員; 1999년도에는 11.5%였죠? 그리고 금년도에도 10월말 기준해서 8.8%밖에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 계산은 많이 계산한 거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년도 시세라는 것은 자꾸 체납시세가 늘어나니까 우선 징수해야 될 절대금

액이 늘어나고 거기 늘어난 금액에다가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게 채납시세징수.....

○金鍾來 委員; 산출근거공식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식에 대비하더라도 24%는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그러니까 절대액이 많아진 데다가 전 5년 중에서 징수율이 가장 높았던 해의 징수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金鍾來 委員;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保社局長 계십니까? 안 계세요?

○保健社會局長 鄭圭台; 네, 있습니다.

○金鍾來 委員; 수고하십니다.

노원구 동천빙상체육관 건립계획 알고 계시죠?

○保健社會局長 鄭圭台; 네.

○金鍾來 委員; 역시 내용대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차원에서 장애인 빙상경기장을 건설해서 체육활동을 증진시켜주고 또 재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천체육관, 즉 빙상경기장을 짓는 데 99억 5,000만원이죠?

○保健社會局長 鄭圭台; 금년도 예산반영이.....

○金鍾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99억 5,000만원이죠?

○保健社會局長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金鍾來 委員; 이 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빙상경기장이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 인식합니까? 장애인에 대한 재활도움은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같은 데죠. 빙상경기장은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 안 그렇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保健社會局長 鄭圭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검증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鍾來 委員; 국고보조 24억 가지고 지으려고 하죠? 나머지 시비니 동천에서 자비부담으로.....

○保健社會局長 鄭圭台; 네, 자비부담 19억입니다.

○金鍾來 委員; 그런데 지금 동천체육관 짓는 목적이 재활의 기능을 예를 들어서 확충시키기 위해서, 또 재활서비스차원에서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빙상경기장을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모른다는 것은 담당국장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때 투자심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來 委員; 네, 간단히 말씀하세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까지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수영장을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수영장보다는 빙상장이 더 재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고 검증이 돼 가지고요.

또 수영장은 장애인들이 안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 소변이나 이런 것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수질의 관리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물속에서 훈련하는 것보다는 빙상에서 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게 일본에서도 연구결과가 나오고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金鍾來 委員; 잠깐만요, 지금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비쳐지지 않았고, 또 제가 재활기능전문 담당 의사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빙상경기장에 대해서는 재활기능에 거의 운동이 도

움이 되지 않아요. 수영이나 헬스가 도움이 되지 빙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이렇게 쓰인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투자심사에서도 그때 그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金鍾來 委員; 제가 투자심사내용을 자료를 받아봤다니까요. 전혀 한 군데도 없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제가 그 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마 회의록에 그 설명부서에서 와서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金鍾來 委員; 제가 예를 들어서 직접 전문의사한테 물어봐도 빙상경기에 대해서는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보조 24 억원을 준다니까 이것을 안 쓸 수는 없고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더구나 국가입장은 이렇지요. 장애인들에 대한 빙상경기장이 없다보니까 서울시 산하에서 지어서 운영해라, 재활기능 이런 것에는 관계 두지 않고, 그런 것 아니에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을 권역별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송파에 기이 운영하고 있는 송파 쪽하고 강서하고 그 다음에 은평, 은평에 서부재활 거기하고 이번에 노원, 4대 권역별로 하는데 지난번 투자심사 때도 강서 쪽도 국고보조를 조건부로 해서 그때 심사가 되었습니다.

○金鍾來 委員; 국고보조를 그러면 여기서 올리려고 했습니까, 내시 되었습니까? 노원은 내시 되었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동천 그쪽은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

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이고.....

○金鍾來 委員;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화에 초점을 맞춘 동천체육관은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화에 예를 들어 도움을 주는 운동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대로 서울시에서 따라서 하는 것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고, 또 투자심의 내용을 보니까 금년 3월에 예를 들어서 재검토하라고 했고 4월에 부적정하다고 했고 9월에 조건부 추진했습니다.

조건부 추진은 국고보조 24억, 시비 56억, 나머지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부담을 자부담을 했을 때 조건부 추진을 했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자부담 조건으로.....

○金鍾來 委員; 그런데 조건부 추진이 회수되었을 때 사업결정이 나가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金鍾來 委員; 그런데 조건부 추진이 어떻게 해서 하기로 했어요, 동천학원하고 이행준수를 하겠다고 협약처리를 했어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협약체결은 안 했습니다.

○金鍾來 委員;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천체육관에서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돈 못 내놓겠다고? 그러면 국비 24억 시비 56억 들여놓고 공사를 중단하겠어요?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협약체결서를 받아야지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협약체결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고 집행 단계에 가서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崔明玉 委員長, 白懿宗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白懿宗; 실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국장하고 실장하고 둘이 곁들여서 하니까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우리 保健福祉局長, 여기 왜 나왔어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그 부분은 투자 심사한 내용은 제가 상세히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白懿宗; 아니, 담당국장이 위원의 질의에 전혀 모르고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국장은 발언대에 어떻게 서있고 하는 이 모습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오늘 같이 중요한 예산 심의하는 날에 담당국장이 전혀 모르고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되었지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白懿宗;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金鍾來 委員; 보건복지국장님, 투자 심의할 때 보건복지국장님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제가 안 했습니다.

○金鍾來 委員; 안 했어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金鍾來 委員; 그래서 잘 모른다 이 말이지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金鍾來 委員; 그런데 행정은 연계성이지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물론 상세하게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金鍾來 委員;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을 전부 다 숙지해야 되지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金鍾來 委員; 그런데 이행조건을 준수한다는 협약체결 같은 것을 공문으로 해야 되는데 협약체결을 준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백지화되어 버려요. 어떻게 협약체결을 얹고 조건부로 해 주었습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본인이 이행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鍾來 委員; 이제 협약서를 체결하면 안 된다니까요.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어야 돼요. 시비 56억이 투자되면서 또 국비도 받아가면서 하면서 동천학원하고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추진이라고 했지 않아요. 그러면 조건부가 해소되었을 때 사업결정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사업 결정을 해 주었으면서 협약체결을 안 했어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지금 금년도에는 국비만 들어와 있고요.

○金鍾來 委員; 아니, 금년도에 국비만 들어와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얘기를 안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업비가 99억 5,000만원이지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金鍾來 委員; 99억 5,000만원 가지고 동천체육관 지을 수 있어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鍾來 委員; 충분해요, 어떻게 충분해요? 그때 당시 투자 심의에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 기술심사과장이 참석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일반 체육관도 평당 390만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3층을 파기 때문에 평당 55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적정하냐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은 어떻게 적정하다고 표현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물내용이 8,400㎡인데요, 8,400㎡이면 지금 지하 3층으로 이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24억, 시비 56억, 자부담 19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 자부담을 하겠다는.....

○金鍾來 委員; 추가 자부담이 지금 19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도 계속 추가 자부담하겠다고 했어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金鍾來 委員; 말로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아닙니다.

○金鍾來 委員; 협약체결도 하나도 받아놓지 않고?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체결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金鍾來 委員; 아니,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구두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서면을 지금까지 하나도 받아놓지 않았어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공문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來 委員; 참, 답답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약 현재의 금액이 배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참석한 국장이 어느 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의심스럽다? 했어요. 걱정을 했어요. 이런 사업이예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잘못 되면 재정운영이 어려워져 경직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적격으로 되었을 때 지방비를 부담합니다. 그렇죠?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金鍾來 委員; 그런데 지방비 국고보조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내시한 부분이 있고 서울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지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金鍾來 委員; 이 부분은 중앙에서 내시를 했습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내시를 했습니다.

○金鍾來 委員; 내시를 하더라도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적정성이 있을 때 우리가 시비가 그 정도 충당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을 요청하지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金鍾來 委員; 그때 얼마를 신청을 했습니까? 보조금을 얼마 내려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그 당시에 얼마를 요청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시비 대 국비 부담률이 30 대 70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24억에 대해서 시비 분 70%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金鍾來 委員; 그래서 24억입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국비가 24억이지요. 국비가 30에 해당되는 것이 24억이니까 저희들이 70%에 해당하는 56억원

을 요청한 것입니다.

○金鍾來 委員; 그래도 24억원이 부족하잖아요, 30%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아니, 국비가 24억이 내시가 되었으니까.....

○金鍾來 委員; 내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아니, 그러니까 내시 자체가 30%니까.....

○金鍾來 委員; 국비보조 신청할 때는 이렇게 하지요? 서울에서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의 필요가 있을 때는 행자부에 건의를 하지요?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획예산처에 통보하고, 또 행자부와 예를 들어서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해서 보조금의 얼마를 확정해서 우리 서울시에 내려 주지요. 그런데 그 신청한 금액이 얼마나 이 말입니다. 30 대 70으로 했으면 24억이 넘잖아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鍾來 委員; 그래요, 국비 신청요.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지요. 무조건 국비보조금을 내시해 준다고 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아닙니다. 국비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24억을 책정을 해서 내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사업비의 30%가 아니고 국비가 24억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비율을 시비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金鍾來 委員;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인이 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다고, 제가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만두겠

습니다만, 이 동천체육관 문제는 만약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또 다른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白懿宗; 金鍾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保健福祉局長, 잠깐만 서 주세요. 보건복지국장으로 취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1년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白懿宗; 1년 되었습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委員長代理 白懿宗; 그러면 본 예산안을 짜면서 요구할 때 국장이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제가 내용을 다 봤습니다.

○委員長代理 白懿宗;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한 마디를 물으면 과장이나 누가 와서 옆에서 보조를 해야만 답변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委員長代理 白懿宗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黃好淳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好淳 委員; 시간이 되어서 저는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쪽을 보면 2001년도 서울시 투융자사업별 투자심사, 그 심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白懿宗; 黃好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22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委員長 崔明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李松竹委員님 먼저 하십시오.

○李松竹 委員; 環境水資源委員會에서 활동하고 있는 李松竹委員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자치위 소관 2-4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 소관의 예산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청렴계약제 운영은 보니까 1억 1,227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이 예산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全長河; 監査官 全長河입니다.

청렴계약 옴부즈만사업은 금년도 7월 10일부터 참여연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나 물품구입시 계약할 때에 업체에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공

무원들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청렴계약에는 옴부즈만이 다섯 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옴부즈만, 기타 옴부즈만 해서 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공공부분에 대한 계약과정을 투명하고 잔존 부조리 관행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국제투명성기구인 TI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지난 7월 10일부터 서울시가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전국에 확대돼서 전 기관에 확산돼서 운영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李松竹 委員;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적극 추진하고 않았더라면 하시지 않을 사업이겠네요.

○監査官 全長河; 아닙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그러한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서울시가 다각도로 심도 있게 시책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지난 5월에 참여연대에서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 이러한 반부패 시책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서울시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검토 중에 제의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잘 됐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李松竹 委員; 그것이 첫 시도한만큼 착오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全長河; 네, 잘 되고 있습니다.

○李松竹 委員; 그리고 이어서 2-88쪽인데요. 고향방문단 직원 교통편의 제공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지만 이것도 신규 편성돼 있는데요.

50만원씩 80대를 제공할 목적인데 사실은 지나간 7, 80년대에는 산업체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방식을 이행했는데 현시점에 와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판단되는데,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생각들어요. 行政管理局長님께서 필히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님 나오셨어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行政管理局長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절 때 직원들이 고향돌아갈 때 버스 제공하는 사업비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李松竹 委員; 어디에서 났느냐 보다도 이것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사실 7, 80년대에는 산업체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시행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을 부활시키는 데 의아심을 갖게 되고 지금은 교통편의가 그 때와 다른데 굳이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지금까지는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했는고 하니 지금 저희 시청에 보면 자판기도 있고 또 식당 운영도 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명절 때 버스로 직원들 귀향조치를 시켰습니다. 또 상경할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커서 이왕이면 우리가 그렇게 벌어서 충당하는 것보다는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예산으로 부담해 주는 것도 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李松竹 委員; 글썄요, 지금 현재는 교통편의가 다양한데 굳이 이것을 50만원씩 80대씩이나 제공하면 오히려 교통혼잡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교통혼잡문제보다는 어차피 직원들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최소한 명절, 추석 때다 그러면 오늘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버스표 구하기도 어렵고 근무를 다 끝내고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죠. 얼마 안 됩니다.

○李松竹 委員; 글썄,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굳이 7, 80년대하고 똑같이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하위직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松竹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2쪽인데요. 인력자원의 효율성 관리를 위해 가지고 사이버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1억 2,02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8,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첫째, 사이버인사정보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획기적인 편의성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사권자가 A라는 사람을, 물론 그 때도 적성을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은 保健福祉局 社會課에 근무하는 것이 가장 적임이겠구나 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인사정보시스템이란 것은 뭐고 하니 소위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시스템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전공하고 그동안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해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희망은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자료를 전부 정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게 공급자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자료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컴퓨터 키보드를 딱 누르면 거기에 유사한 사람들 명단이 짝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명단을 요청하는 부서에 보내 가지고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유사한 경력과 학력과 그리고 자기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중에서 골라 써라 그래서 그 자료를 넘겨주면 그 부서에서 고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 지금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최초로 서울시가 개발해 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만 되고 제대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이 구축된다, 적은 돈 가지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큰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개발을 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이니까 이 예산만은 꼭 한 번 살려 주십시오.

○李松竹 委員; 그런데 각 기업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있습니다. 삼성 같은 데가 일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松竹 委員;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결론 내려졌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네, 그렇습니다.

○李松竹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16쪽인데요. 포상금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것도 더러 있는데 이것도 22억 6,700만원이나 또 신규 편성돼 있어요. 지금까지 포상금제도가 없었어요? 2-216쪽 소방관 리요.

○消防防災本部長 金寬洙; 消防防災本部長 金寬洙입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李松竹 委員; 쉽게 설명해 보세요. 포상금 이것도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또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寬洙;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松竹 委員;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파악도 안 하면서.....

○委員長 崔明玉; 본부장! 파악을 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消防防災本部長 金寬洙;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하세요, 지금.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委員長님, 消防防災本部長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委員長 崔明玉;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도움 없이 하세요.

○李松竹 委員; 예산을 잡아놓고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많네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洙洙; 4급 이하 소방공무원으로서 50%에서 200%까지 상여금을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李松竹 委員; 지금 아마 파악이 안 되어서 대충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파악이 안 된 것을 지금 당장에 답변하려고 하기도 우리 시간만 낭비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알겠습니다.

○李松竹 委員; 자료로 주시고 잠깐만요. 이렇게 포상금 제도까지 신규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위원회에서 여기 2-236쪽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여기에 보면 파출소 재건축해서 용두, 잠원, 독산 이렇게 나왔는데 서초소방서 잠원파출소는 한번 가 보셨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가 봤습니다.

○李松竹 委員; 가 보셨으면 비 오면 비 새고 또 갈라져 가지고 언제 그게 무너지면 더군다나 큰 소방차가 들락날락하는데 그 진동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많고 진단결과도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셔서 이게 부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소방서 관할에 있는 잠원파출소는 90년도 12월 24일 건축을 해서 10년이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그 건물의 후면이 좀 기울인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하철 3호선 터널이 건물 하부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7월에 한국안전진단연구소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전면에서 볼 때는 한 4cm 정도, 좌측면에서는 7.5cm, 우측면에서는 3cm3 정도 기울여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행자위 상임위원회에 올렸었는데 이유는 경과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이유에서 이것

이 아마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李松竹 委員; 재건축의 필요성이 아니에요. 거기가 무너졌을 때 인명피해와 더불어 모든 행정적인 책임을 지시겠어요? 어떻게 제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설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부결된 거잖아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李松竹 委員; 충분히 드렸는데도 부결되었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건물이 10년밖에 안 되었다는 그런 이유로 이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李松竹 委員;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10년 되었는데도 개축을 해야 될 학교가 있고 50년이 되어도 괜찮은 학교가 있어요.

10년 된 학교도 증...개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더군다나 다른 일반직하고 달라서 소방서에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하는 그 분들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 집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하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은 행정적인 책임도 있고, 어떻게 이것을 부결했다는 것도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본부장, 답변대에 서세요.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시는 우리 본부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에 거기에 동참하신 거지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그런데 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미처 제가 혼돈이 와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崔明玉; 어디 아프십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아닙니다.

○委員長 崔明玉; 똑바로 서세요.

지금 일선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소방서 관계자들입니다. 저도 저희 옆집에 소방대원이 한분 살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밤낮도 없이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방본부 예산만은 우리가 아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부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제도는 성과주의입니다. 잘 아시지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뭘 알아요? 성과주의예산이 뭐예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성과결과에 의한 결과가 없을 때는 예산을 전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삭감을.....

○委員長 崔明玉; 그렇지요. 결과가 예상했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산배정을 감액을 한다든지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그런데 결과에 도달하기도 전에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 모습으로 본부

장이 직접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선 소방서 서장들을 보내서 로비해서 강남소방서 짓고 파출소 짓고 시장의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본위원장한테도 이것을 가져왔어요, 소방서 서장이요. 이것을 보면서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전문위원 이것 갖다주세요.

귀하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죄송합니다.

○委員長 崔明玉; 뭘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본부장님 밑에 수천 명이, 몇 명이요, 지금 전부 소방서원이, 얘기해 보세요, 총 몇 명이예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5,282명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본부장님 때문에 소방서 관계예산들이 힘들게 생겼어요. 들어가세요.

○李松竹 委員;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소방서에서 그 환경이 그런 상황이어서 식사하는데도 외부에서 와서 식당을 하는데 거기서 밥을 사먹는데 불 끄러 나갔다 일부 대원들이 와서 배가 고파서 그 밥을 더 못 먹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밥을 해요.

밥을 해서 식당을 직영으로 하면서 배라도 부르게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서 직원들은 인기가 없어서 신부감도 없대요. 그래서 각 백화점으로 이런 데서 여성들을 좀 중매해 달라고 사방에 구걸하고 다니는 판인데 집이라도 좀 바람 안 새고 무너지지 않는 데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됩니까? 이것을 설명 못해서 이것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너무 큼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감사합니다.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崔明玉;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진작 어제 저녁에 잠 안 자고라도 공부를 하셨어야지요. 소방서원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5,282명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그 조직표 보내세요, 조직현황.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저희들 총 정원이 5,282명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조직현황을 보내시라고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우리 金判吉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判吉 委員; 金判吉委員입니다.

환경관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環境管理室長입니다.

○金判吉 委員; 환경관리실이 금년 맑고 푸른 환경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순계예산 14.4%인 1조 5,5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상수도 하수도까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金判吉 委員; 상수도 하수도까지 들어갔어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렇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공원부지 매입이나 조성에는 얼마나 할애가 되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공원 쪽에는 지금 333억 정도만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얼마요?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333억.
- 金判吉 委員; 그런데 일전에도 시정질문에서도 말을 했는데 요,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잘 알고 계시죠?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알고 있습니다.
- 金判吉 委員; 그런데 그 일부 제일은행 부지 축구장 외에 다른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래서 일단은 운동장은 많은 시민들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부지가 잘 확보가 안 되어서 우선 그것을.....
- 金判吉 委員; 간단히 대답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래서 그것을 우선 급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金判吉 委員; 이것은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요?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 金判吉 委員; 그리고 또 거기 운동시설을 해서 개인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한 땅이 있지요, 소송 제기한 땅?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알고 있습니다.
- 金判吉 委員; 그러면 부지 매입을 전혀 고려 않습니까?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金判吉 委員;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민원이 없어지고 공원조성계획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金判吉 委員; 그런데 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합니까?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일단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가

의회로 넘어간 다음에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미처 반영 못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렇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리고 마포소각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현재 노원소각장이 30%, 양천이 50%, 강남이 시험가동 중, 그런데 지금 많이 놀리고 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왜 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것 100% 운영도 못하면서?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물론 위원님, 기존시설에 비해서 특히 강남은 11월 23일에서부터 본격 시험가동에 들어가 있고 이 시설들도 저희가 앞으로 인접자치구와 필히 공동이용을 촉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겠고, 특히 마포자원 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난지도 1·2매립지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서 아마 어떤 지역보다도 상당히 민원 그것이 덜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포구 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원만하게 입지가 되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시에서는 마포, 용산, 중구 3개 구가 처음부터 공동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량도 과거의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정밀분석을 해서 900톤 이하로.....

○金判吉 委員; 알았어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金判吉 委員; 간단히 해 달라니까요, 대답을. 지금 3개 구

청에서 그렇게 합동으로 소각장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6개 구청에서 하려고 다시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3개 구에 쓸.....

○金判吉 委員; 그러면 3개 구청에서 900톤의 물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제가 볼 때는 물론 900톤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환경부의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했을 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금 더 정밀분석을 하면 아마 다소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환경부와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지금 쓰레기 감량추세를 보면 3개 구청에서 500톤 내지 550톤밖에 안 나와요, 1년 후에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저희가 볼 때는 2005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전부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제외하고는 1일 한 676톤 정도 실제 소각대상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마포소각장은 완공을 하면 100% 가동할 수 있어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물론입니다.

○金判吉 委員; 어떤 협약이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3개 구청장이 97년도 12월에 협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주민대표 선정된 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 區가 쓰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金判吉 委員; 작년에 64억 배정받았죠?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금년도 예산에 64억으로.....
- 金判吉 委員; 그렇게 작년 심의 때.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렇습니다.
- 金判吉 委員; 집행했습니까?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심의가 되면 바로 調達廳에 조달 받주 의뢰가 돼서 공고가 돼야 이 사업이 내년도 착공하는 예산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 金判吉 委員; 64억은 지금 불용으로 남았어요?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닙니다. 아직 불용이 아니고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 金判吉 委員; 명시이월이에요?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 金判吉 委員; 그러면 왜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설명을 잘 못했어요?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것보다도 기존의 3개 시설이 지금 광역화 안 돼 있는데 이것이 또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보이시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제가 오히려 이것이 내년도 정상 착공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 3개 시설도 인접 자치구와 같이 공동 이용하는 데 촉진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 金判吉 委員; 그건 말이 안 맞는데요. 마포는 입지조건이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이 좀 적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신 것이죠?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니, 실제로.....
- 金判吉 委員; 그러면 마포가 100% 가동하면 노원, 양천,

강남 전부 100% 가동시킬 수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하겠습니다.

○金判吉 委員; 지금 노원, 양천, 강남 100% 가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 동안 물론 우리가 대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그 주변의 피해가 어떻게 미치는가, 또 재산가치는 얼마나 하락이 되는가 그것까지도 같이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역할분담, 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소각, 이것을 인접구와 서로 역할분담하는 방식과 또 재산하락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것을 함께 다각적으로 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金判吉 委員; 그 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제 직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金判吉 委員; 수없이 그 말 듣고 세월만 가고 있네요. 됐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맑은 물 공급에 7,664억이 반영되었고 수돗물 불신에 대해서 수돗물검사를 86개항에서 105개항으로 확대한다면 가히 국제수준이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닙니다. WHO에서 권장수치는 12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5개, 또 2002년도에 가서 121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수돗물 불신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애를 쓰시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수돗물을 못믿겠다 그래서 정수기를 사달라고 28억을 요구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을 띄우고 내년 3월에 서울시 전체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한 5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3월에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 노후관 파이프는 전부 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전체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判吉 委員;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교육청이 막대한 조직인데 거기에서 수돗물을 불신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장이 아무리 믿어주시오, 믿어주시오, 그것 되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돗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金判吉 委員; 교육청 이야기로는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또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걸러서 먹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94년 이전까지 파이프가 아연도강관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솔직히 전부 다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말씀할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약 17% 정도 노후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5년까지 전부 갈게 되면.....

○金判吉 委員; 그런데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서 홍보비도 많이 쓰고 있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金判吉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서울시민들이 불신을 해요. 믿지 않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에 대한 대책은 우선 노후관을 개량하고 아까 말씀드린 녹물은 94년 이전에는 비내식성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직결급수를 해 가지고 옥상에 있는 물탱크라든지 지하저수도를 점차적으로 줄일 것 같으면 2011년부터는 아마 녹물문제는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년 정도 걸리겠습니다.

○金判吉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建設局長님.

○建設局長 張錫孝; 建設局長 張錫孝입니다.

○金判吉 委員; 지난번 시정질문에 답변하셨죠? 도봉구 창동 염광빌라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얘기인데 그 때 당시 철길까지해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했습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철길을 횡단하는 공사는 완료가 안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창동 염광빌라 그 주변에 원래 하수 배관 공사를 해 가지고서 철도 있는 쪽 배관으로 연결돼서.....

○金判吉 委員; 그러니까 98년 8월에 큰 수해 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네, 알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 때 당시에 국장 하셨어요?

○建設局長 張錫孝; 그 때는 제가 建設安全管理本部長이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 수해가 막심한 큰 피해를 준 수해인데 수해복구가 최우선사업 아니에요?

○建設局長 張錫孝; 그렇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을 안 주려고 했어요?

○建設局長 張錫孝; 그 관계는 지금 구청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수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 있는 데를 횡단해서 공사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염광빌라 수해관계는 해결이 됐고요.

그 수로를 그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 공사를 해야겠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염광빌라는 재건축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金判吉 委員; 지금 현재는 재건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장 내년도에 98년도와 같은 수해가 난다면 재건축 잡고 있을 거예요? 재건축 아직 막연해요.

○建設局長 張錫孝;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예산을 40억, 50억 들여놓고 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생각해서 중단하겠다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왜 작년에는 안 주려고 했어요? 수해복구비가 제일 긴급한 것인데 왜 안 주려고 했어요?

○建設局長 張錫孝; 金委員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작년에는 관로를 변경하는 공사비를 줘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金判吉 委員; 작년에는 했는데 지금 나머지 공사, 철길까지 와닿는 관로를 연결해서 이쪽 염광빌라쪽으로 끌어들여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建設局長 張錫孝; 그 염광빌라 철도를 횡단하는 공사는.....

○金判吉 委員; 염광빌라 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전부 침수지역입니다.

○建設局長 張錫孝; 그런데 金委員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염광빌라에서 하수관으로 나오던 것, 그 하수관로를 바꿨

기 때문에 그쪽 일대의 침수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앞서서 판단하지 마시고 현장에 局長님이 출장을 하셔서 그 관계관들 불러가지고 브리핑을 받아보세요.

여기 下水課長 이야기만 듣지 말고 거기 확인해 봐서 과연 현장 가서 이것을 자료 재고 눈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밑에 직원들이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큰 피해 입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이왕 투자를 했으니 종결을 지으라 그 말입니다.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 놓고 지금 상태에서 다 됐습니다, 지금 다 된 것 아니에요.

현장에 가면 거기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관들은 안 된다고 큰일난다고 그래요. 불러서 하든지 가서 하든지 사업을 종결 지어야지 그만해도 됩니다, 또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이려고 앞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확인하세요.

○建設局長 張錫孝; 네, 알겠습니다.

○金判吉 委員; 다음에는 女性政策官님.

아까 제가 어린이집 분포현황하고 투자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안 줬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金判吉 委員; 했는데 어디에 했어요? 자료를 누구를 줬어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도봉구 창4동이라는 데는 철길이 있어서 독립된 洞입니다. 도로는 있지만 이웃 동의 어린이집을 이용 못 하는 그런 洞이에요. 창4동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는데 왜 삭감해 버렸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저희는 2000년도 자료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신축 어린이집은 한 케이스입니다. 국비가 7,6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30%씩 해서 5,700만원이 배정된 것밖에 없거든요. 2001년도 지금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金判吉 委員; 네, 2001년도요. 그런데 여기 국비, 시비, 민간 이런 것이 거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민간도 없고 區에서 한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2001년도 예산에는 기능보강비로 21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니까 신축을.....

○女性政策官 盧美惠; 신축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니까 줄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 지어달라 그 얘기에요. 이 필요성을 적어서 요구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관계없고 삭감해 버리니까, 그 조건 같은 것 잘 봐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洞別로 구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상황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아동수 대비한 구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상황을 봐서 충분한지 검토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金判吉 委員; 그런데 구립하고 민간도 없고요. 국...공립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인구가 3만 2,000명 거주하거든요. 대부분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직장에 나가는 맞벌이 부부가 사는데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지어주시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셔야 될 사항같습

니다.

○金判吉 委員; 네?

○女性政策官 盧美惠; 국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은 국비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를 조건으로 해서 신축할 수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環境管理室長님.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委員長 崔明玉; 마포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만약 예산편성이 안 돼서 자원회수시설이 건설 안 되면 이런 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등지에서 우리 뭐라고 할까 쓰레기 반입을 제한한다든지 금지시킨다든지 그럴 우려도 있는 건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것은 다분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인천시 남동구 같은 경우에 또 일부 자원회수시설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2000년도 예산까지 불용 처리하면서 그렇게 서울시가 소극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김포수도권 매립지는 혐오시설을 다 받아야 되고 서울시는 다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委員長 崔明玉;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더 그 필요성 자체를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

고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수도관이 학교 담장까지만 서울시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담장 안의 문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원래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 하고요.

○委員長 崔明玉; 학교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학교에서 담 안의 배관은 학교에서 합니다. 담장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만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수돗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담장 안에 그러니까 담장까지 말고 담장부터 학교 내적인 문제인데 학교 내부의 시설되어 있는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에 오래 되어서 30년 40년 되어서 이게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는 직수를 하지 않고 물탱크를 만들어서 받았다가 이렇게 해서 물탱크를 청소를 자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학교 내부에 있는 노후관들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委員長 崔明玉; 崔忠敏委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忠敏 委員; 崔忠敏委員입니다.

우리 金判吉 先輩委員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대답하는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을 어
제 할 때도 제가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물에 대한 중요성을
본위원이 신랄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상당히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구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
된 질의와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지금 음용수 수질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고 계십니까? 음용수 수질기준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세요?
1963년에 제정했고 91년에 변경되었는데 33개 항목으로 수
질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법정항목은 45개 항목이고.....

○崔忠敏 委員; 추가된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36개 항목
을 해서 81개 하다가 5개를 더해서 86개 항목을 지금 현
재.....

○崔忠敏 委員; 8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崔忠敏 委員; 좋습니다. 86개 항목에 적어진 것을 본위원에
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서울시에서 나온 수돗물 먹는
것을 수질비교 자료로 해서 2000년 11월말에 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수도기술연구소라고 있지
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이것을 보니까 수돗물을 206개 했는데 적합
이 206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수기 물 같은 경우는 35개

를 했는데 적합이 9개이고 부적합이 26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 26개 중에 정수기 물에 일반세균이 나왔던 것이 17개이고 일반세균과 대장균 pH, pH 알고 계시죠, 수소이온농도. 3개가 나왔고 일반세균과 pH가 나온 것이 1개 나왔고 거기다가 1개가 더 동과 pH가 나왔고 2개는 pH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 사용했던 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정수기 물이 중요한 것은 아연과 동이 나왔던 겁니다. 아연과 동이 인체에 어떤 유해물질인가를 알고 계시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崔忠敏 委員; 잘 모르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崔忠敏 委員; 그러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아연은 불쾌한 맛이 나고 두통과 구토, 설사를 일으켜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게 했고, 동은 간이나 심장에 손상을 주어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그러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유해물질이라고.....

○崔忠敏 委員; 유해물질이 아니라 정수기 물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정수기 물에서는 대부분이 미생물 항목이나 pH기준을 초과합니다. pH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칼리성이나 중성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산성화된 물을 마신다는 증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위원님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대답을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 崔忠敏 委員; 관계관이 나와 있습니까?
-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 崔忠敏 委員; 그러면 관계관이 나와 보세요.
-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수도기술연구소의 기술개발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崔忠敏 委員; pH기준이 초과되었다는 것은 산성화된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으로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그렇지요.
- 崔忠敏 委員; 그러니까 인간이 먹어야 될 물은 알칼리성이냐 중성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산성화된 물을 마시고 있다는 증거지요?
-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네. 참고로 얘기 드린다면 인체의 폐하는 7.4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산성 물은 저희가 정수과정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성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수를 가지고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崔忠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정수기 물이 위생 물이나 pH기준을 초과합니까, 안 합니까?
-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정수기 물은 그 정수기 메이커의 성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崔忠敏 委員; 정수기 메이커요? 좋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정수기 실태조사 분석을 했는데 얼마나 어이없이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28억원을 들여서 약 4,000대 넘게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초과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수실태를 보니까 추진배경목적은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교육을 조성,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러

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535개 학교에서 설치학교가 381개 학교 71.2%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은 학급 수는 1만 3,472개 학교를 하고 있고, 학교당 평균은 3.8개, 약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는 일반적으로 냉온수기 정수기 가격은 약 100만원에서 130만원 이상 고가입니다. 그리고 필터를 교체할 때는 약 5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수기를 설치하려면 먹는물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0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 먹는물관리법 제29조 제1항 30조 규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네, 알고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한번 얘기해 보세요.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먹는 물과 먹는 샘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기를崔委員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정수기 물 1월 28일 데이터나 그 다음에 2월 25일 데이터나 그 다음에 3월 24일 등등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먹는 물에 있어서 데이터와 정수기 물의 데이터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이런 현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에는 이상이 없는데 정수기 물에는 이런 현황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자료로 드렸습니다.

○崔忠敏 委員; 이게 보니까 정수기가 업체별 정수성능의 차이가 비교정보가 미흡하고요, 정수능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28억을 들여서 약 4,300대의 정수기가 들어오는데 이 28억에 대한 정수기

1대의 마진이 얼마인지 아세요?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崔忠敏 委員; 정확하게 보내 온 데이터는 72% 나오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80%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원짜리가 8,000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28억이면 약 9,600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8억 들여서 지금 4,300대를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중에 정수기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고 계시지요?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네.

○崔忠敏 委員; 지금 현재 정수기 업체가 한 5...6개 되는데 W사라고 보내 왔어요. 자사를 밝히기는 힘들었겠지요. W사가 50%이고 C사가 35%입니다. 그러면 85%라는 정수기사업을 시중에 우리 나라 대한민국 정수기 업체를 다 우지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51%가 넘으면 독과점 견제업체예요. 독과점 상품이 됩니다. 그런데 85%나 된다면 정수기 업체를 다 독점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러면 2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서울 교육청에서 정수기를 수입한다면 그 2개 회사에 가겠어요, 안가겠어요?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구분을 해 봐야 알겠지만.....

○崔忠敏 委員; 아니, 당연하지 검토할 것이 뭐가 있어요.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그런데 崔委員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崔忠敏 委員; 아니, 당연하지 검토할 것이 뭐가 있어요. 2개 회사로 당연히 가겠지요? 2개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전제조건이 딱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정수기 필터교환, 즉 필터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네.

○崔忠敏 委員;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필터 자체가 막이기 때문에 막의 성능에 따라서 오래 사용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崔忠敏 委員; 그러니까 A사의 제품이 나온 것이 B사의 필터를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85%라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전체시장을 다 움직인다고 할 수 있고 그 자사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업체에서 정수기를 만들 경우에 다 부도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가 생산되지를 앓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약 400만대 이상의 정수기가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대 이상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忠敏 委員; 말해 보세요.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우리 崔明玉 委員長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수 물이 아무리 잘 처리가 되어서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학교측 내에 교정으로부터 되어 있는 급수관이 노후화가 되면 그런 불편 때문에 학교는 아까 우리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정수기가 성능이 있고 마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崔忠敏 委員;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정수기 회사가 마진이 있고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수적인 것으로 얘기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수기 400만대 공급되었는데도 200만대가 왜 이렇게 사용하지를 않느냐, 이것은 한국정수기공업협회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첫째, AS가 안 됩니다. 그리고 판매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副教育監님한테 물어봤는데 ?노후시설 수도관을 다 교체한 다음에는 정수기를 안 하겠습니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이 학교에 나간 정수기가 몇 대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 정수기가 학교에 설치된 것이 강남 같은 경우는 68%, 강북 66%, 동부 59.5%, 이것을 노후수도시설을 전부 개량한 다음에 이것을 싹 폐기 처분하면 이 돈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차라리 28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6개월은 정수물탱크를 청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6개월 기간 내에는. 그렇게 돼 있죠?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네.

○崔忠敏 委員; 그런데 2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수기를 한 다음에 그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물에 대한 불신을 준다는 것은 서울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물에 대한 불신을 가져옴으

로써 이렇게 사회가......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위원님이......

○崔忠敏 委員; 잠깐, 뭐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웃고 그래요!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대단히 죄송합니다.

○崔忠敏 委員; 본위원이 이것은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내가 보좌관 있는 줄 알아요!

○委員長 崔明玉; 崔忠敏委員님......

○崔忠敏 委員; 이 숫자 하나 하나가, 이 자료를 할 때는 본위원의 피나는 노력을 가지고 질문하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 수돗물 사건 하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동을 걱정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왜 웃어요! 지금 질문내용이 웃게 돼 있습니까?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委員長 崔明玉; 자, 崔忠敏委員님 우리......

○崔忠敏 委員; 잠깐만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회한 다음에 계속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려면 할 필요도 없어요.

○委員長 崔明玉; 지금 직책이 무엇이죠?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技術開發部長님, 경력도 많고 전문가이신데 예를 들자면 崔忠敏委員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빨리 아셔야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설치하려고 하는 정수기문제는 잘못됐다, 왜냐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정수기에

서 이러이러한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참아가면서 수도관을 빨리 고쳐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 28억원에 대한 문제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네, 들어가세요.

○崔忠敏 委員; 다시 나와 보세요. 지금 정수기 방식이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다 좋지 않다고 나왔어요. 역삼투압 방식도 있고, 중공사막식 방식도 있고 세라믹 방식도 있고, 활성탄 방식도 있고, 맥반석 방식도 있고 이용교환수치가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인체의 유익한 미네랄성분을 제거시켜버리고 역삼투압 방식은 물의 산성화를 시킬 수 있고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중공사막식 같은 것은 여과막에서 세균번식이 가능하다, 정수기 자체의 단점이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 첨부에 정수기 방식이 좋지 않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소비자보호원 1998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정수기사업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한쪽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한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한쪽은 그 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정수기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어떤 동료의원은 서울시장과 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한대요. 교육청 시책과 서울시 시책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당기겠습니다. 3월부터 현황판단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2월말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朴鍾玉 本部長님, 잘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28억을 들여서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일찍 여러분들이 정보입수를 하셔서 그런 정도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말렸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이러하다, 아셨죠?

朴鍾玉 本部長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 우리가 법정전입금도 주고 이것 저것 다 챙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정수기 설치하면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서울시장이 불신받는다. 결국은 국민의 정부라든지 이 국가자체가 불신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했어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 못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조사기간을 당겨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그러세요.

○崔忠敏 委員; 그리고 정말 얼마나 28억이 뼈아픈 돈이냐 하면 지금 이 사정에 맞게 적시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본위원

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까지, 정말 기가막힙니다. 초등학교에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까지 28억 가지고 설치를 다 해 준다는데 뭔가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8억이 어디에서 뚝 떨어진 돈입니까?

○委員長 崔明玉; 崔忠敏委員님, 이제 놓아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네, 들어가십시오.

○崔忠敏 委員;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의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교육청과 또 서울시 관계자가 잘 연락해서 긴밀한 정책수립과정부터 그 정책에 대한 평가분석부터 해 가지고 좀 세밀하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예결위에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28억, 또 맑은 물 80억, 뭐 몇십 억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알겠습니다.

○崔忠敏 委員; 그리고 또 답변하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공무원한테 무슨 감정 있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였을 때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과 같이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된 정책에 대해서 서로 검증하는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하려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냥 나와서 슬렁슬렁 대답하고 이 예결위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울시정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그렇습니다.

○崔忠敏 委員; 일단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上水道事業本部長님 수고하셨습니다.

趙養鎬委員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養鎬 委員; 趙養鎬委員입니다.

企劃豫算室長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에 느끼는 불만, 또 바라는 사항들, 또 서울시민들이 서울시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서울시 정책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이 시민들이 서울시나 시장께 바라는 사항일까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趙委員님의 질의사항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가능한 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지역별로 그것이 편향되고 지역간에 서비스의 수준이 차등화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시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지 동일한 수준의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민들의 욕구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청소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녹지분야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렇습니다. 전체 서울시민들이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 때도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강북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대다수는 자기가 강남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 그

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북쪽에 사는 주민들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企劃豫算室長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저도 동의합니다.

○趙養鎬 委員; 동의하시면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안점이라든가 또는 2000년도, 또 재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강남쪽에 비해서 강북쪽의 열악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강북쪽에 시비사업 투자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또 강북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강북쪽에 투자가 좀 미약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강남과 강북간의 시비사업을 균형있게 맞추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큰차이는 없고.

아까 金判吉 同僚委員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만 어린이집을 시에서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북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문화...복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강남이나 서초 재정자립도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170% 정도 되던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趙養鎬委員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趙養鎬 委員; 네, 그래서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70, 서초...중구, 이렇게 되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복지 또는 노인복지, 문화부분, 이

런 게 재정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립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그에 반해서 강북이라든가 동북부지역에 열악한 재정여건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투자를 거의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름 전인가요, 어느 석간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작년도 서울대 입학생에 서울출신들이 45% 되는데 거의 강남...서초에 있는 8학군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린이집 부분도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區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어린이집도 못 만들고 노인복지관도 못 만들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서울시 정책입안자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자세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趙養鎬 委員; 네, 답변하십시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趙養鎬委員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직원들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만 문제를 푸는 데는 지금 현재 재정의 부족, 그 시스템 가지고는 해결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심의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 중에 지역별 투자배분을 보면 저희들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 그 다음에 강남지역인데 강남지역은 주로

말하는 관악이나 동작 거기는 강남지역이 사실상 아니고 강남 동부지역을 저희들은 강남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배분은 내년도 예산안은 9.8%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2%는 지금 강북지역과 강남의 서부지역.....

○趙養鎬 委員; 강북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마포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북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대문청사와 관련돼 있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임대주택 매입이 거기 많이 반영되면.....

○趙養鎬 委員; 전체적으로 보면 강북과 강남이 균형이 맞다고 말씀하시려면 마포 같은 경우는 거의 강북쪽의 투자재원이 마포의 월드컵경기장 짓는 것인데, 또 동대문쪽에.....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區別로 나누어진다면 다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크게 권역으로 보서는 소위 강남지역에는 10% 미만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區 자체의 재정력 격차에 기본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국회와의 간담회라든지 정당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區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균형 상향 평준화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시비투자는 강북, 그 다음에 강남의 서부지역에 좀 상

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저희들이 집중 배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도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 지금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특별교부금 사업은 지금 개별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짓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고, 연도 중에 지금 말하는 그런 구비로 해야 될 의무적인 사업인데 구 단위의 재정력의 격차가 있지만 또 시비를 투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그런 조정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연도 중에 특별교부금제도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趙養鎬 委員; 어떻게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趙養鎬 委員; 그러면 어떻게 작년도에도 세목교환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 서울시나 高 建 市長, 또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다고 그러지만 거의 노력을 안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세목교환을 추진하겠다, 또 서울시장님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그랬지만 올해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겠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게 되면 어느 정

도 열악한 강북 쪽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라든가 또는 강남지역의 청장님들도 국회의원들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 보셨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번에도 제가 TV 인터뷰에 나가서 서울시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강남, 서초 등 종토세의.....

○趙養鎬 委員; 제 질의시간이 20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몇 개 구가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의 구청장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국회에 저희들이 의원 입법으로 올리는 데까지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자동 폐기가 되었던 것은 잘 아시는 사항이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당정 협의회 때도 건의를 해서 그게 채택이 되었는데 지금 趙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입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고 노력을 하지 않았지 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성과가 없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趙養鎬 委員; 성과가 없어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목교환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 당시는 기획예산실장이었습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아닙니다.

○趙養鎬 委員; 아니었습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趙養鎬 委員; 부시장이라든가 기획예산실장이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행정자치위원들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또 그분들하고 협의한 적도 없어

요. 유일하게 간 사람이 행정관리국의 해당 과장 한 분이 국회의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을 만나서 그 세목교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실무과장이 과연 가서 보좌관, 비서관들하고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 또는 기획예산실장 정도가 국회의원들 또 세목교환에서 반대하는 당이 있어요. 찬성하는 당이 있고 반대하는 당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趙養鎬 委員; 그러면 찬성하는 당도 그렇지만 반대하는 당의 당대표라든가 또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高 建 市長이 면담을 하든 또는 만나서 협의를 해서 세목교환의 취지에 대해서 타당성에 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노력들이 감지가 안 되어 있었어요.

감지가 안 되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高建 市長께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당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시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趙養鎬 委員; 현실적으로 세목교환이 올해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당이 있기 때문에 세목교환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면 계속해서 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계속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질 것이고, 또 재정자립도가 충족되어 있는 자치구에서 계속 충족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2000년도 시정연 자료에 보면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자료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경로당, 심지어는 노인들을 모시는 노인당까지도 강남하고 강북 자치구별로 죽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102개 강남구 같은 경우에 132개, 서초구 102개인데 나머지 종로구 60개, 중구 35개, 용산구 55개, 이렇게 경로당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북 쪽에 사는 주민들은 ?내가 차별을 받고 있구나. 서울시가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구나?라고 대다수가 느낀다 말이에요.

대다수가 느끼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또는 검토를 하겠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 자치구별 투자 현황을 보라, 강남과 강북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혀 강북 쪽의 주민들이나 또는 강북출신 지역의 시의원들은 이해가 안가고 이 양반들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목교환 자체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런 지방재정의 시스템 안에서는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지 않는 한 문제가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금 제도의 활용이나 그 수단만이라도 지금 그런 자치구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데 충실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글썸 그게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趙養鎬 委員;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보세요. 자치구에서 재정여건이 없어요. 서울시민인데 같은 65세 이상 노인인데 내가 중랑구나 동대문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예산에서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동 부분이라든가 또는 노인부분, 복지부분, 장애인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특별교부금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자치구에 배려하는 형식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린이집 또는 노인복지관, 또 경로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자치구사업이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물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趙養鎬委員님께서 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 광역적인 대단위 투자수요도 그것은 또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의 각종 단위법령이나 기준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결국은 특별교부금 재원에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것,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趙養鎬 委員; 특별교부금이 올해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자치구 특별교부금의 10% 정도.

○趙養鎬 委員; 그러면 우리 강북지역하고 중랑지역은 얼마나

나갔나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게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행정관리국에서.....

○趙養鎬 委員; 그것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崔忠敏 委員; 이게 마치 강북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강북에 투자비가 74%인데 도로, 교통, 환경, 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부분 월드컵경기장 상암지구 개발에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동세로 하면 간단합니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공동세는 지금 현재 목적세인데 그것은 소방시설과 자원회수시설 건설비로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공동시설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소방방재본부 예산은 훨씬 더 오버하고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공동세를 쓰는데 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지 관련세가 고정자산세와 특별토지 보유세로 해 가지고 이게 도쿄 도세로 분류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데는 광역기초단체 공동세로 하고 있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런데 그게 자치구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崔忠敏 委員;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자치단체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나라에는 다만 종토세와 비례해서 세율을 규정한, 외국과는 달리 개별과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융통성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
이기 때문에.....

○趙養鎬 委員; 특별교부금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시기 전에
분야별 투자현황을 한번 볼게요. 갖고 오셨으면 저한테도 하
나 주십시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자료를 지금 받았습시다. 자료를 드
리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중량구하고 강북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특
별교부금을 얼마를 받았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의 규
모는 총 교부금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 2000년도의 예산은 1,309억 수준입니다.

○趙養鎬 委員; 총액이 1,300억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그 가운데 지금.....

○趙養鎬 委員; 강북 쪽에 동북구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강
북구하고 중량구하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중량구가 지금 현재 53억 9,700만원
약 54억이 나갔고요.

○趙養鎬 委員; 강북구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강북구가 63억, 도봉이 61억.

○趙養鎬 委員; 그런데 이게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그 대신 좀
적게 주셨겠네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 다음에 송파 같은 데는 9억.

○趙養鎬 委員; 강남구는 얼마 주셨어요? 강남구는 없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강남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
정자립도가 100% 넘기 때문에 안 주지만 특별교부금은 12억
나갔습시다.

○趙養鎬 委員; 서초구는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9억 2,000입니다.

○趙養鎬 委員; 보세요. 중랑구에 54억이 왔는데 중랑구 예산이 1년도 예산이 전부 해서 1,200억이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2,400억 정도 벌써 2배 차이가 나는데 중랑구에 54억 주고 강남구에 12억 주고 이게 어떻게 해서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해소하는 대책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랑구에 54억 가고 강남에 12억 가면 40억 차이인데, 기획예산실장님 그러니까 40억 정도 더 가서 과연 뭘 하겠어요? 40억 정도 더 가고 강남구 같은 데는 강북쪽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예산이 더 많은데, 저는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해소할 수 있다, 또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이번에 강남에 나간 것은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이것은 ASEM준비사업 때문에 올해 특별한 그런 상황에서 나갔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趙養鎬委員님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특별교부금의 운영방향을 그렇게 해서 지역간 격차해소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趙養鎬 委員; 그래서 이게 저는 서울시가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해소하려는 대책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라니까요. 재정자립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역에 특별교부금으로 50억, 60억 주어서 과연 강북구나 중랑구

에 50억을 준다고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땅 좀 매입하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高建市長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실장까지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이 강북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좌절감을 준다니까요.

그것을 예산실장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쪽 강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슴속에 뼈저리게 느낀다고 그러면 좀 표현 자체가.....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저도 중랑구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간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만은 저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근본문제 해결방안을.....

○趙養鎬 委員; 서울시가 노력을 해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25개 자치구별로 시비사업이라든가 교부금 이런 부분들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의미에서이고요.

강북하고 강남이 열악할 때는 강북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시에서 우리 강북쪽에 사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런 문제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이나 예산사업을 보면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어서 저도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세목교환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목교환 자체도 반대하는 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세목교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되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하여튼 趙養鎬委員님은 앞으로 보다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趙養鎬 委員; 아니,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개선했어야 되고 변화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기 때문에 좀더 개선하겠다, 점진적으로 노력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강북하고 강남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강북과 강남의 이 지역간 격차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단결을 해치고 또 과거 영...호남처럼 지역감정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산상으로 나누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노력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企劃豫算室長께서 밤잠 안 자시고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잘 알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부분은 누가.....월드컵경기장은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8%입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면 언제 착공했죠?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98년 10월 20일입니다.

○趙養鎬 委員; 월별 공정률은 지금까지 몇 %씩이나 됐습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지금 4, 5%.....

○趙養鎬 委員; 월별이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네.

○趙養鎬 委員; 그런데 제가 지금 2000년도 국정감사자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서울 월드컵경기장 건설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지적하는 요지를 보니까 일반공공건물의 월평균 공사진척도 1.2%에서 2%보다 높은 공정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삼점 몇 %라고 했죠?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네.

○趙養鎬 委員;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趙養鎬委員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기초공사라든지 콘크리트공사에서는 공정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공정률이 높은 것은 가능한 복합공정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가 다른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는 관람석을 제작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또 잔디를 키우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설비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공사에 지장 없이 공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단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별工期 비교가 나와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工期가 39개월, 계획공정률이 2.56%,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33개월에 3.03%,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1.2%에서 2%를 넘게 되면 공사의 월별 기간 그것을 나

뒤서 공정이 높다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건물에 있어서는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좀 짧다, 그러니까 경기장 건설을 일찍 서둘러서 계획하고 건설 시공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39개월만에 이工期를 맞추다 보니까 월 공기율에 한 2.5% 계속 진척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98년 초에 월드컵경기장의 신축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 5, 6개월 동안 신축 논란 때문에 시간을 소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부터 그 기간의 한계를 예견했기 때문에 이 설계지침서에 그 工期에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던키로 공모했던 겁니다.

설계가 된 상태에서 工期가 지연되는 게 아니고 그 38개월에 할 수 있는 공사를 저희가 모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법자체가 P·C(Precast Concrete) 공장에서 전부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일반공법으로 하면 한 3년 반이 걸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네.

○趙養鎬 委員; 전혀?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문제가 없고 또 건설관리, 우리 CM(Construction Management)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건설관리기법으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래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문제점, 대안, 또 지적사항 이런 점들을 참조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잘 알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우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崔明玉 委員長, 白懿宗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白懿宗; 趙養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來雨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朴來雨 委員; 수고 많습니다.

企劃豫算室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편성을 할 때 최초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이 미리 올라와서 취합을 합니까? 아니면 企劃豫算室에서 어느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냅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서울시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국별 책임제를 도입하면서 각 국별로 투자비 실링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용재원의 실링을 내려보내주면 그 범위안에서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재정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분을 추가로, 실링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추가로 요구를 하면 그 요구된 案을 가지고 저희 企劃豫算室에서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이나 기술사업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건물관리를 한다든가 청소용역을 한다든가 각종 우리 서울시 산하 용역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98년이나 99년이나 2000년이나 똑같은 액수로 되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약 60% 내지 7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봤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예산편성 내용이 98년도도 금액이 똑같고 99년도에도 똑같고 2000년도도 똑같고 내년 요구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봤을 때 한 60% 선, 그러면 40% 선을 계속 연속해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발견했는데 그런 것을 세심히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朴來雨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시설위탁관리용역.....

○朴來雨 委員; 네, 위탁관리비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결국 그런 문제는 비단 그것 뿐이 아니고 각종 건설공사비도 저희들이 건설부라든지 이런 물가정보지를 기초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입찰과정에서는 역시 그것도 85% 낙찰률이 그렇게 되면 예산이 15% 덜 집행되는 그런 것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물 위탁관리비도 각종 기준단가 용역 적정인력 이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만 이것을 위탁자 사업선정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맡으려고 하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해야만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게 돼서 결과적으로.....

○朴來雨 委員; 아는데, 물론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예산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있는 것은 최초의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이고 하니 우리 서울시 예산편성이 공개되게끔 돼 있죠? 공개되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그렇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업자로부터 담합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렇진 않습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오히려 입찰과정에서 저가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朴來雨 委員; 예를 들어서 각 사업소에 청소용역이 98년 A라는 사업소를 보면 6,000만원 잡혔어요. 98년 예산편성 6,000, 그런데 용역비는 얼마였느냐, 3,000만원 줬단 말이에요. 99년도에도 6,000만원 예산편성해 봤어요. 그게 얼마나 한 3,300 용역비로 나갔어요.

99년 마찬가지로 6,000만원, 내년도 요구액도 6,000만원, 그랬을 경우에는 최초에 예산편성을 잘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런데 또 반대로 항상 업체에서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산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왔을 때 부실관리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과 결산의 성격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측해서 편성한 것이 예산이고, 낙찰을 해 본 결산결과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결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는데 필히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지금朴委員님 지적하는 대로 예

산편성 자체가 불합리하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朴來雨 委員; 建設委員會 사업별 설명서 508쪽인데 建設局長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建設局長 張錫孝; 建設局長입니다.

○朴來雨 委員; 508쪽,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14개로 증설됐죠?

○建設局長 張錫孝;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朴來雨 委員; 지금 현재 접근로가 몇 개나 되죠?

○建設局長 張錫孝;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8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朴來雨 委員;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야만 14개 증설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몇 개 증설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지.

○建設局長 張錫孝;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朴來雨 委員; 지금 한강기획사업단이나 또는 한강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는데 이런 접근로 증설할 때 협의를 하고 합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네.

○朴來雨 委員;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한강관리사업소가, 어쨌든 별도 사업소가 있는데 이런 접근로 증설계획이 있다면 각 사업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建設局長 張錫孝; 저희가 이것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가 정합니다만 그 때 관계관 회의를 전부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 협의서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建設局長 張錫孝; 네.

○朴來雨 委員; 지금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대중교통 연계 보행로로 정비할 계획도 있고,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한강시민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비로 또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르겠지만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로를 시설 할 때는 협의를 했다는데 그 협의를 주시고, 이 14개소 증설계획인데 치수관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네, 그런 치수관계는 다 검토를 합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그 관문을 뚫는 데 있어서 거기에 수문을 해 닫는다는지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지금 지하차도, 지하보도를 하는데 양화지구 높이 6m인가 폭 3.4m 길이가 137m인데 여기는 왜 길이가 이렇게 길입니까? 망원지구는 길이가 70m이고 구암공원지구는 42m인데 여기는 길이가 137m란 말이에요. 밑에 2001년 시행도표를 보세요.

○建設局長 張錫孝; 이 관계는 올림픽대로를 횡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연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朴來雨 委員; 그렇다면 2000년도 금년 예산에 41억 5,000 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구 지하차도 건설금액입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이것은 양화지구하고 구암공원 있는 데 주로 했습니다. 지금 망원지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지금 이것은 양화지구, 구암지구는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네, 진행중입니다.

○朴來雨 委員; 그러면 공사 진행중이면 감리비는 최초에 공사할 때 감리비를 선정하지요?

○建設局長 張錫孝; 네.

○朴來雨 委員; 그런데 그 밑에 감리비가 금년에 2억이고 2001년 예산부분에 4억 4,000이 잡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建設局長 張錫孝; 그것은 시설비 자체가 금년보다는 명년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감리비도 많아졌습니다.

○朴來雨 委員; 시설비라니, 최초에 예산금액을 해서 감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나갑니다.

朴來雨 委員; 그러니까 공사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선정이 되는데 지금 양화지구하고 구암지구는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2억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거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금년도는 38억 집행하는 것에 따른 감리비이고요, 그리고 명년도는 59억 집행하는 데 따른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는 금년도에 책정을 하고 명년도에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는 명년도에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기성에 따라서 감리비를 그렇게 선정합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네, 그렇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협의한 내용을 좀 주세요.

○建設局長 張錫孝; 네, 알겠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리고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요, 내년에 예

산요구를 얼마 했지요? 내년 예산금액이 187억 8,000만원을 요구했지요? 2001년도 예산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 189쪽에 있습니다.

○建設局長 張錫孝; 네, 197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런데 이 공사는 언제 마치지요?

○建設局長 張錫孝; 이것은 명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렇죠, 2001년 5월까지.

○建設局長 張錫孝; 명년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년도 예산이 지금 187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공사기간은 5개월뿐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 집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신교 보수보강 공사완료 계획이 2001년 5월로 되어 있어요.

○建設局長 張錫孝; 이것은 명년도 말에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朴來雨 委員; 지금 설명서를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로 답변을 합니까?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建設局長 張錫孝; 여기에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朴來雨 委員; 지금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建設局長 張錫孝;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러면 내년도 공사금액이 187억 8,000만원이란 소리입니까?

- 建設局長 張錫孝; 197억 8,000만원입니다.
- 朴來雨 委員; 그렇게 막대한 돈이 1년에 공사비로 다 공사할 수 있습니까?
- 建設局長 張錫孝; 네, 가능합니다.
- 朴來雨 委員; 가능합니다?
- 建設局長 張錫孝; 네, 그래서 저희가 광진교도 명년도에 순공사비만 200억을 넣었습니다.
- 朴來雨 委員; 물론 기술적인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그렇다면 양화대교 신교는 언제 준공했지요?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지요?
- 建設局長 張錫孝; 네, 구교는 이미 준공이 다 끝났고요.
- 朴來雨 委員; 구교는 이미 다 끝났고 금년 6월 20일에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신교 보수계획이 지금 다시 얘기 드리지만 2001년 5월부터 할 계획이에요. 지금 신교도 보수하고 있습니까?
- 建設局長 張錫孝; 구교는 다 끝났고 신교를 보수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 저희가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 朴來雨 委員; 그런 계획으로?
- 建設局長 張錫孝; 네.
- 朴來雨 委員; 물론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니까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다면 신교 준공은 언제 마쳤지요?
- 建設局長 張錫孝; 당초에 기존교량 준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 朴來雨 委員; 아니, 개통해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 준공날짜?
- 建設局長 張錫孝; 82년도입니다.

○朴來雨 委員; 국장님, 이 다리는 성수대교를 재현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그렇죠?

○建設局長 張錫孝; 네.

○朴來雨 委員; 그런데 이 다리 보수공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지요? 예산 삭감이 되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建設局長 張錫孝; 네, 삭감되었습니다.

○朴來雨 委員; 47억 삭감했지요?

○建設局長 張錫孝; 네.

○朴來雨 委員; 그러면 47억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지요?

○建設局長 張錫孝; 저희가 당초에는.....

○朴來雨 委員; 아니, 이 다리 보수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잘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제2의 성수대교 재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데 승인해 주었지요?

○建設局長 張錫孝; 동의했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러면 다리 통과할 필요 없잖아, 내년 예산.....

○建設局長 張錫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구교를 보수해서 구교를 통행하고 있고요, 신교는 교통통제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명년도 말에 완공을 해서 교통통제를 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에서 월드컵 전에 개통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계시면서 47억 8,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朴來雨 委員; 지금 월드컵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아니, 그것은 월드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朴來雨 委員; 시민을 위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그것은 아니고요, 최소한도 월드컵 전에는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來雨 委員; 그렇게 상식 밖의 답변을 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 용비교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 이 다리 공사부분은 예산 삭감하는 자체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승인해 준 것 자체가 다리 공사를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위원회는 다리 보수공사를 전부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白懿宗; 朴來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朴來雨 委員; 아니, 한 가지만 더.....

○委員長代理 白懿宗;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朴來雨 委員; 3분만 더.....

○委員長代理 白懿宗;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대단히 지장이 많습니다.

○朴來雨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懿宗; 건설국장, 하나만 물읍시다.

예산요구를 예를 들어 100억을 요구했는데 한 30%나 40%를 삭감해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그 목표한 시일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委員長代理 白懿宗; 그렇다면 지금 朴來雨委員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47억인가를 삭감했는데 그것을 국장이 동의할 해 주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내년 연말까지 개통을 하려면 전체 예산

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白懿宗; 동의를 한 후에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동의를 했습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2002년…….

○委員長代理 白懿宗; 됐어요. 그런 식의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金周喆委員長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周喆 委員; 지금 서울시장하고 대화가 제일 잘 되는, 자신 있게 국장이나 실장이 있으면 자신 있게 한번 나와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웃지 마세요. 한심해서 그래요.

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국장들 웃었어요.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기다렸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안했습니다.

지금 왜 시장하고 제일 가까운 실장이나 국장들이 아침이면 매일 간부회의를 하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과 이렇게 현안 사항이나 사실상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간담회 성격의 회의는 일주일에 목요일 한 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식적인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周喆 委員; 글썄, 공식적인 회의를 하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金周喆 委員; 지금 말이에요. 자치구에 가보면 서울시장의 정책에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많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일부 있습니다.

○金周喆 委員; 지금 국장들이 과거 자치구에 시달을 하든지 명령을 하는 것들이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어렵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金周喆 委員; 지금 말이에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장에 질의를 할 때 삼풍백화점으로 인해서 재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 지금 여미지식물원을 누가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에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환경관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周喆 委員; 지금 시장이 본위원에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또 무슨 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 답변서가 왔어요.

그런데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삼풍백화점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제주도에 가있다는 말입니다.

그 재산을 정리해서 서울시에서 빚을 갚든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사업으로든 해야 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企劃豫算室長,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삼풍사고 해결 수습을 위해 들어간 시의 재원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金周喆 委員;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갖다 놓고 서울시 땅이라고 하고 예산 지원해 주는데 1년에 적자가 얼마예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여미지식물원 거기 이자발생 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수지는 맞습니다. 이자비용을 감안하지 않으면.

○金周喆 委員; 수지 맞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요. 지금 돈 들어간 투자액하고 현재 거기 입장료나 모든 수입에서 해가지고 거기 시설투자나 아니면 투자하는 액수가 있는데 수지가 맞는다는 얘기에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지금 10월말 현재로 보면 세입이 65억 1,200인 반면에 세출은 45억 3,500만원이 지출돼서 단순한 수입지출상으로는 15억 7,7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삼풍사고 수습을 위해서 들어간 시비에서 발생된 이자를 감안하면 그것만큼은 아직 충당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金周喆 委員; 본위원이 아는 것도 98년도에 수리비로 60억을 지원해 줬어요.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 무슨 수지가 맞는다는 거예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저는 지금 環境管理室에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金周喆 委員; 삼풍백화점 일어난 지가 벌써 5년이에요. 5년 동안 계속 거기 시설투자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적자지 뭐예요. 시민혈세를 거기다 붓는 것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국장들이나 집행부한테 얘기하는고 하면 시장하고 왜 가까운 사람이 없느냐, 이런 문제를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시민단체가 됐든 어떤 중앙정부에서 하든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제주도여미지식물원을 서귀포시에 팔든 제주도에 팔든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빨리 서울시에서는 회수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저희들도 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당초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어떤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여미지식물원을 매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당초 이 매각 과정에서 계속해서 유찰이 됐고 또 한 번 낙찰이 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재력이 부족해

서.....

○金周喆 委員; 실장! 내 얘기 들어봐요. 본위원이 시장한테 답변받은 것은,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번의 유찰과정을 거치면서 매각이 안 된 그런 차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외국자본에게 매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은 상당히 미래에서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생물종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金周喆 委員; 실장! 본위원이 질의한 것 그 핵심만 가지고 그 답변만 빨리빨리 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金周喆 委員; 그 동안에 있었던 일 다 늘어놓으면, 본위원 질의하다 보면 쪽지 날라와.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면 그 답변만 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일부 매입의사를 밝혀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매각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자기들한테 매각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응할 수 없고 그래서 국내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기관이 있다면 거기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을 국내기업 중에서 매입할 의사를 가진 데가 없기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지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것을 매각 안 하고 서울시가 꼭 가지고 있겠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金周喆 委員; 좋아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 주무국장들이 이 문제는 빨리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잘 알겠습니다.

○金周喆 委員;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들 서로 간에 그局的 애로, 지금 예를 들어서, 環境管理室長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環境管理室長입니다.

○金周喆 委員; 시장의 천만 그루 나무심기가 몇 % 됐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지난 6월말 현재 780만 그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周喆 委員; 그러면 거의 얼마 안 가면 1,000만 그루 되네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중에서 교목하고 관목이 있는데 관목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목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金周喆 委員; 環境管理室長, 여의도공원은 가보셨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가봤습니다.

○金周喆 委員; 외국에서 온 친구들과 제가 여의도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나무 몇 개 빼놓고는 진짜 이런 것도 공원이라고 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環境管理室長이 생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면에서 최초로 다 설계에 의해서 됐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周喆委員 지금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입니

다. 영등포에 공원이 OB공원하고 여의도는 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등포에 공원이 몇 %인지 아세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周喆 委員; 잘 모르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렇습니다.

○金周喆 委員; 지금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1년, 2년 있다가 바뀌고 하니까 계획이 안 서요.

環境管理室長 정도라고 하면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전문성도 연마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영등포는 공장 이적지에 아파트 들어가는 데다 나무 몇 개 심어놓고 하는 것 외에는 공원이 0.4%에서 0.6% 그 사이입니다.

다른 지역은 70% 산이 있기 때문에 공원용지로 돼 있고 그러면 趙養鎬委員이 실장한테 강남, 강북의 편중예산, 또 삶의 질의 편차, 이런 질문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金周喆 委員; 그런데 지금 영등포에 그런 공원이 없는 그런 공장 이적지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심지어는 OB공원에, 대림동에서 거기 오려면 몇 km인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무계획적이고 편중에 관계된,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사업으로서 環境管理室長 정도 되면 공원이 어디가 부족되고 어떤 지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자연공원이나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도심에 공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최대한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지역에 빈약하다라고 느끼

신다는 점도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金周喆 委員; 왜 이렇게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지금 현재 각 局에서 예산편성 하시는 것을 보면 건설, 도로, 또 건축, 공원, 이런 부분에 자기 파트에 있는 부분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와서 본위원이 두 번째 이런 말을 쓰는데 설탕 배급 주는 식, 각 구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균형 있게 나누다 보니까 우선순위의 이런 사업이 전혀 안 되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위원님, 저희도 다른 데로 여러 분야의 공원확충문제, 또는 장기미보상문제, 녹지확충 그런 분야에 저희들 環境管理室로서는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예산실과 협의를 하지만 그러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재원의 안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불가피하게 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려운 부분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金周喆 委員; 그 말씀 잘 했어요. 시장님 말씀을 잘 팔았는데 시장님이 역전에서 흔히 얘기하는 텍사스골목, 역전에 가보셨죠? 시장님하고 같이 왔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니오, 같이는 안 갔습니다.

○金周喆 委員; 시장님이 그 자리에 오셔 가지고 아직도 이런 곳이 있느냐 여기는 책임지고 2001년도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하고 주민들과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지만 창녀촌에다가 무작정 상경하는 사람들 슬레이트 밑에서 2,000원씩 주고 잠자는 데가 70군데나 됩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불나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은 그 지역에 가서 그런 공약들을 하고 이렇게 해 주겠습니까 해 봤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20억이라고 해봐야 보상 몇 미터 나가요? 그런 정리할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 줘야 주변정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시장님을 보필하고 다니는 분들은 시장님이 그쪽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공약은 지킬 수 있어야 시장이 존경받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장이 만날 거짓말 하고 다니는 경우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존경받겠어요? 시장이 존경받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켜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알겠습니다.

○金周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白懿宗; 金周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載震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載震 委員;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李載震委員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불용액이 금년에 몇 %나 됩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저희들 올해 불용액은 아직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5,900억 규모가 불용이 발생이 되었고, 내년 예산집행률이 한 96% 수준, 그래서 한 4% 수준이 불용이 되는 것이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런데 99년도는 좀더 많지요, 한 6...7% 정도 되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99년도가 약 4.4%입니다.

○李載震 委員; 6,000억이 4.4%밖에 안 됩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李載震 委員; 불용이 예산절감이나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4.4%면 적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더 되는 것 같은데 %가, 6,000억원이라는 숫자가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사용에 심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부채탕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고 부채탕감의 해로 삼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부채가 얼마나 남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획대로 한다면?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현재 99년도말 현재로 봐서 서울시의 부채규모가 약 6조 682억원 수준이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부채규모가 한 2,000억 규모 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는 큰 부채상환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고에 가서 사실 이것을 이미 받아서 공사를 했어야 할 공사인데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커진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서 국고에서 빨리 지원을 해서 큰 부채를 갚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부채를 청산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연구해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일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못 가고 예산과장이 교통관리실장하고 국회 예

결위에 나가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하고 또 저희 서울시 출신 의원님들하고 예결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개년간의 지하철부채 관리 위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저희들 요구는 매년 한 1,900억 수준의 정부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李載震 委員; 건설과 별개로 부채상환을?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동안 몇 차례 정당간담회도 했고 기획예산처 장관하고도 간담회도 했고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것 가지고도 안되겠어요, 그것도 몇 배는 되어야 부채가 탕감이 되지. 환경관리실장님.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환경관리실장입니다.

○李載震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해서 70 몇 % 심었다면서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현재 780만주를 심었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러면 78% 심었네요. 그런데 사실은 만원짜리 나무를 심어서는 그게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20년이나 30년이 되어서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20년, 30년 자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나무를 재건축을 하면 무작정 다 베어 버립니다, 거기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녹화를 시키고 환경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은 무료로 주는 것인데 인건비만 잘해서 활용을 하면 그냥 빨리 효율성이 있으면서 정말 녹화의 값어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의도공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주변에는 겹벚꽃나무가 수백 수가 있는데 내년 2월쯤 전부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를 다 베어 버리면 너무 보기가 아까워요. 서울시에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또한 그렇게 해 봐도 효과도 없는데 이런 나무를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잘 파서 경비 절감해 가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파다가 여의도공원이랄지 또는 다른 데 어떠한 곳에 심는다면 정말 보기에 참 좋은 나무인데 그렇게 베어 버려서 되겠느냐, 이런 데 혹시 뭘 어떻게 해 본 계획이 없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李委員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평화의 공원 이런 데도 은행나무 재개발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무료로 주시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곧바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무료로 주어야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바로 우리 집 앞에 펍권아파트가 정리를 하는 데 1주도 누가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베서 버립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베는 것은 잘못입니다.

○李載震 委員;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만 하면 뭘 해요, 전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주도 파지 않고 100% 다 베어서 버렸다 말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미리 얘기를 해서 그것을 베지 않고 그 주변에 남겨둘 것

은 남겨놓고서 나무는 이식해서 쓰도록 하고......

○李載震 委員;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는 데는 한 나무가 거추장스러우니까 싹 파버립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어디에 하고 있는가 또는 언제 그것이 이주가 되어서 언제부터 정리를 하는가를 미리 각 구청별로 파악을 해서 여기서 서둘러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나무 파 갈래, 안 파 갈래? 관공서에 아쉬운 소리 하고 다니겠어요,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맞습니다. 지금 그 동안 금년도 나무은행을 했을 때 전체는 7,842주가 지금 나무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불량주택 재개발이라든지 공동주택 그런 데서 죽 한 것이 200여 주밖에 안되고 있는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李載震 委員; 200여 주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미도아 파트라는 지역에는 약 960세대가 있는데 그 지역 하나만 해도 아주 좋은 수목을 1,000주 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전부 재건축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그쪽 지역의 나무 한 그루라도 가져온 일이 있어요, 알아본 적이 있어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저희가 강서에도 바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주 고운 나무들이 있어 그것을 저희가 같이.....

○李載震 委員; 일명 곱벚꽃 같은 그 좋은 나무가 수백 주가 있는데 곧 내일 모레 전부 절단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李載震 委員; 그리고 용마산자연공원 시설확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여기 나와 있지만 1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규모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자료를 하나 주시고, 여기에 있는 자료보다는 정확하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李載震 委員; 그리고 장애경마장도 근처에 하고 있다는데 그게 같이 맞물려집니까, 용마산공원에?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잘 못 들었습니다.

○李載震 委員; 장애경마장, 그 지역에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제가 보고 받고.....

○李載震 委員; 하여튼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경마장을 거기에 하면 시에서는 그래도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알겠습니다. 면목 쪽입니까?

○李載震 委員; 네, 면목동 용마산입니다.

인사동거리 조성은 거기서 하지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그렇습니다.

○李載震 委員; 제가 인사동에 가보니까 돌을 잘 잘라서 상당히 돌 값을 많이 들이고 또 사실 그 건축공사에 많이 쓸 돌을 거기다가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7개 정도만 처분을 했습니다. 총 5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7개 정

도를 처분했습니다.

○李載震 委員; 글썄, 어떻게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갖다 놓았는지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의 관을 파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없앤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컨설팅 자체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실상 설치가 되었습니다.

즉 차를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어떤 벤치역할, 그러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화랑이나 이런 큰 업체에서는 주차를 못하게 되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개를 철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또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李載震 委員; 글썄, 존치해서 좋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였던 모든 골동품을 지금 어디에다가 갖다 놓았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것은 역사문화탐방로 사업에 저희들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복궁이라든가 대학로라든가 성규관길이라든가 전부 합쳐서 그쪽에 전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것 쓴 것을 어디에다가 몇 개를 두었는지 그 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李載震 委員; 앞으로 언제 어느 때 하든지 계획성을 확실히

해서 시민들이 볼 때 대체로 잘 되었다, 많이 좋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혐오성 있고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좋은 조성을 한다면서 그러한 조성은 지양해야 되고 많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리고 여성정책관에게 한 말씀만 여쭙어보려고요.

남녀동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여자를 더 선호하는 그런 마음의 뜻에서 여아출생기념식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성이 더 높아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남녀 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08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순서가 뒤로 갈수록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170...8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비 불균형이 남녀불평등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리고 성비 불균형에 따른 남녀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아출생 무료기념식수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李載震 委員; 글쎄,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성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대우가 돼요.

왜냐 하면 똑같이 정당하게 남자도 여자도 출생하면 나무 한 그루씩 심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여성만 나무를 심고 남성은 안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비에 대해서 여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가 약하니까 이렇게 하

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이를 낳았을 때 나무를 심어서 결혼할 때 오동나무 같은 경우에 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여아를 낳았을 때 어머니들의 경우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하는 부분에 대한 위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그것이 우리 女性政策官님이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왜냐 하면 요사이 분들은 지금 현재 여아를 낳으면 더 좋아하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남자보다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고방식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의 경우에 유산을,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미는 남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성비를.....

○李載震 委員;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래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는데 꼭 성비를 이렇게 해야 여성을 위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앞으로 남녀를 다 출생하면 그렇게 식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白懿宗 幹事, 崔明玉 委員長와 司會交代)

○委員長 崔明玉; 죄송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金成浩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浩 委員; 金成浩委員입니다.

企劃豫算室長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 인원 구성목록과 연구실적, 사업영역 및 규모를 저한테 먼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企劃豫算室 22페이지 市政開發研究院 청사 건립한다 했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그렇습니다.

○金成浩 委員; 내년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내년도 예산이 135억입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企劃豫算室長님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최근에 어렵고 고유가 시대라고 경기가 둔화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이 지금 서울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이번에 신규사업은 도로교통쪽에서는 지하철 9호선 건설하고요.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그다음에 이 市政開發研究院은 이미 설계비가 올해 2000년도부터 설계가 착수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金成浩 委員; 물론 설계비 3억 9,500만원이 기이 투자되고 내년도 2001년도 설계비 5,200만원 투자한다고 하고 설계비도 내년에 투자한다는데 이런 많은 액수를 들어서 내년에 꼭 건립해야 합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이게 현재 2002년도 상반기중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실현가능한 공정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소화가능한 물량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市政開發研究院의 청사 증축만을 꼭 필요로 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산에 있는 현재 市政開發研究院 자리에 消防防災本部가 지금 산재해 있는 消防防災本部 시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방재센터

가 거기 마련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옮겨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金成浩 委員; 제가 생각할 때 국가도 이런 연구원도 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내년에 경기도 안 좋은데 꼭 지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문이 납니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부지를 신규 매입해서 짓는다고 하는 사업같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현재 公務員教育院 부지내에 같이 지어 가지고 시정에 대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서로 접목시켜 가지고 서울시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네, 알겠습니다.

다음 保健福祉局長한테 묻겠습니다.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保健福祉局長입니다.

○金成浩 委員;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왔다갔다 하고. 됐습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金成浩 委員; 보라매병원 병상수를 읽어보십시오.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531병상입니다.

○金成浩 委員; 정확합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일반 병상이 382병상.....

○金成浩 委員; 정확해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행려병상 32병상, 노인전문병상 117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만일 그 숫자가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保健福祉局長이 시립보라매병원 병상 숫자를 모르면 이 업무 자체가 틀린 거예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金成浩 委員; 아니, 누가 가지고 있던 간에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그게 맞습니다.
- 金成浩 委員; 꼭 맞아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 金成浩 委員; 좋아요. 내가 바로 팩스로 받았는데, 어때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이 부분은 제가 해명을 해 드리면 처음에 응급실 자체가 조금 확장됐습니다. 그 확장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金成浩 委員; 이 업무보고한 자체가 틀린데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어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자료 만든 내용에 응급실 약간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 金成浩 委員; 왜 내가 이것을 알게 됐느냐 하면 시정질문할 때 조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읽다 보니까 숫자까지 틀려요. 그러면 뭘로 믿느냐고. 保健福祉局長을 내가 봐서 어떻게 믿어요? 변명할 것 있어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죄송합니다.
- 金成浩 委員; 뭘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한번 읽어봐요. 우리 위원장 책에 얼마 나왔는지 모르니까.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시립보라매병원 병상현황 총 병상수 551병상, 행려병상이 52병상, 일반병상이 499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 金成浩 委員; 그러면 우리 자료에 뭐라고 했어요? 532라고 했죠?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金成浩 委員; 얼마 차이나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려병상이 여기 32병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그게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52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20병상 차이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려병자의 병상을 응급실 옆에 다시 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병상 차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崔明玉;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오전에도 파악이 잘 안 되서 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시다가 추궁을 당한 일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정신차려서 하십시오.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알겠습니다.

○金成浩 委員; 2001년도 얼마나 지원해 주기로 돼 있어요? 한 번 읽어봐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51억 8,000입니다.

○金成浩 委員; 의료장비는 얼마나 구입하게 돼 있어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18억 9,000만원 하게 돼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약 20억 돈 장비를 들어서 줘야 됩니까? 뭘 사려고 하는 겁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成浩 委員; 아니, 위탁병원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줘야 됩니까? 계약돼 있어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의료장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환자 진료라든가 의료보호환자 진료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위탁병원 다른 시립병원에는 의료과업할 때

계속 고생하시고 늦게까지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과업한 위탁병원에 꼭 장비같은 것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도 지난번 의료과업기간에 실제로 거기 진료의사들, 전문의들은 계속 야간근무를 하고 또 응급실에까지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

다만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에 배치돼 있는 전공의들이 과업에 참여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지난번 시의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공의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만 독단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고, 실제 강남병원, 보라매병원도 의료과업기간 중에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成浩 委員;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물론 전공의들이 과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金成浩 委員; 그리고 보라매병원 같은 데 장비를, CT같은 것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CT촬영 같은 막대한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몇 분이나 촬영하는지, 그 분들은 서울대학병원까지 와서 찍어 갖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그렇죠? 있죠?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서울대학병원도 지금 그렇게 장비가 여유 있게 돌아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20억

중에는 물론 신규장비 취득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노후장비 교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成浩 委員; 서울대학병원에서 돈벌어서 노후장비도 사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해야 됩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저희 시립보라매병원 기능이 순전히 일반환자들을 받는 그런 병원기능이라면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 시립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려환자 병상도 20병상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행려환자나 일반 의료보호환자들 저소득시민들을 많이 치료하는 공공기능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은평병원 2001년도 개관하게 돼 있죠?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무슨 말씀인지 잘 못들었는데요.

○金成浩 委員; 2001년도에 준공하게 돼 있죠?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2년으로 넘겼죠?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2002년도로 넘긴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 준공 계획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9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은평병원을 완전히 준공하고 서대문병원을 그 이후에 짓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은평병원은 지금 공정이 80%이고 서대문병원은 공정이 34%밖에 안 되니까 균형 있게 좀 짓는 게 낫겠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은평병원에서

20억을 삭감해서.....

○金成浩 委員; 지금 이야기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행려환자를 하자고 그랬고 2003년도에 서대문병원은 준공되게 돼 있고, 2001년도에 은평병원 하게 되면 삭감 않도록 상임위원회에서 保健福祉局長이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아니요,

지금 깎아놓고 행려환자, 보라매병원 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준공을 할 때는 앓고 그러면 시에서 봐도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2003년도에 서대문병원은 준공이 돼 있고 2001년도에 준공이 되면 어쨌든 간에 이것 완공시켜서 준공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가지고 그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균형있게 짓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으로 했기 때문에 큰 이의를 달지 않았습시다.

○金成浩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관계 그런 것은 간곡히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해서 내년엔 꼭 준공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1년이 가면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시 예산으로 봐서도? 20억 때문에 못한다, 행려환자 저소득층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내가 모르고 질문한 줄 압니까?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고, 어떻게 관철을 못 시키고 2001년으로 넘기면서 보라매병원은 열심히 대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병원에 61억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그래도 줄여서 지원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浩 委員; 제가 보라매병원하고 강남병원을 심도 있게 한 이유는 의료사건이 나면서부터 제가 신문에 난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의사선생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만큼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대하고, 물론 저소득층이나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의 협약서도 자료요청을 받아놓았어요.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과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평병원은 내년에 완공시켜 주어야 되겠지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최대한 노력해서 부족 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浩 委員; 왜, 추경까지 갑니까? 이번에 예결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그래야지. 참 답답하네.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존중된다면 그렇게.....

○金成浩 委員; 상임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우리 추경에 위원들한테 꼭 완공하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국장으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委員長 崔明玉; 뭘 해요, 하기는? 예산심의는 우리가 하고 의결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뭘 줘요, 주기는. 답답하기는.

○金成浩 委員; 저소득층에 체불된 병원진료비 말입니다. 토요일에 의결되었던 것 아닙니까, 왜 늦습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자료 늦는 것 말씀입니까?

○金成浩 委員; 국고에서 돈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나온 돈을 합쳐서 저소득층에게 병원에 지원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金成浩 委員; 그게 왜 늦느냐 말이지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그게 절차가 각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원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하면 그 심사기간이 길게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리고, 짧게는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자치구로 넘어가서 다시 예산요구를 하는 그 절차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金成浩 委員; 그 절차를 줄여서 국장님이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됩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그런데 건강보험원에서 그 심사가 전국적으로 다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심사하는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진료비 같은 것은 빨리 빨리 제때 해 주어야만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해 놓고도 욱 얻어먹는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그때그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 얻을 것은 얻고, 그래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늦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 보십시오. 겨울에 보도블록이니 뭐니 교체하느라고 바쁘지요. 그 모든 것이 일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전부 일을 하면서 욱 얻어먹는 거예요. 왜 연말이 되면 그 돈을 쏟아 붓느냐,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그런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심사기

간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을 이렇게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병원에 지원할 것은 빨리 빨리 지원을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委員長 崔明玉; 보건복지국장님, 거기 서 계시라고요.

제가 시장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시장님은 계수화된 내용들을 밝히시는데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확인을 해 보면 정확해요. 옛말에 용장 밑에 졸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죄송합니다. 상세한 숫자 자체를.....

○委員長 崔明玉; 제가 몇 가지를 좀 물어볼게요. 예산심의중이니까 지금 서울시민 1인당 담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데 쳐다볼 것이 없어요. 그 정도는 알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요. 부채가 얼마인지, 1인당 담세액이 얼마예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잘 몰라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委員長 崔明玉; 56만원이라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적어주셨어요, 얼마요?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56만원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그 다음에 그러면 1인당 부채규모는 얼마예요? 또 적어주어요, 빨리.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60만 3,000원입니다.

- 委員長 崔明玉;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입니까, 감소한 것입니까?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委員長 崔明玉; 이제 제 정신이 돌아오셨구면. 지금 우리 서울시립병원이 몇 군데지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지금 직영 병원은 4군데입니다.
- 委員長 崔明玉; 지금 일반병과하고 특수병과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지금 동부병원만 일반종합병원이고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아동병원은 특수병원입니다.
- 委員長 崔明玉; 보라매병원은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보라매병원은 민간위탁병원으로.....
- 委員長 崔明玉;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일반병과하고 특수병과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병원수로 하면 반반입니다.
- 委員長 崔明玉; 서울시립병원을 자꾸만 특수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지금은 특수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 시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료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崔明玉;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병원에서 취급하기 꺼려하는 병과, 그런 병과를 우리 시립병원 쪽에서 자꾸만 흡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컨대 간질환자들을 위한 치료병동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 말이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그런 일반치료내용은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委員長 崔明玉; 그래야 된다고 빨리 그러세요, 길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崔明玉; 지금 보건복지국 금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됩니까?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8,700억입니다.
- 委員長 崔明玉; 보건복지국 총 예산안이 얼마냐고요, 2001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일반회계가 8,171억 6,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2,457억입니다. 합계 1조 620억입니다.
- 委員長 崔明玉; 거기 보시지 말고 고개 드시고, 저기 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보시지 말고.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6,495억 5,900만원입니다.
- 委員長 崔明玉; 사업비가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 委員長 崔明玉; 8,953억 아니에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주요사업내역에 2001년 예산이 6,495억 5,900만원입니다.
- 委員長 崔明玉;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사업비가 총 얼마냐고요?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보호환자 진료하고 난 다음에 진료비 지불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崔明玉;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의 사업비로 계상된 비용이 얼마냐고요, 기본경비 빼고 기타 빼고?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자고요, 기타사업비, 기본경비, 사업비로 나누어서.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사업비는.....

○委員長 崔明玉; 들어가요.

다음 질문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白懿宗委員長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懿宗 委員; 白懿宗委員입니다.

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정의와 일반회계라고 하는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주로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된 재원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목적의 회계이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수입, 수수료나 사용료 등 특정한 사업수입을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계입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쉽게 말해서?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그런 성격의 회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白懿宗 委員;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불용액을 보면 3,160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99회계년도를 보면 보셔야 됩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맞습니다.

○白懿宗 委員; 맞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白懿宗 委員; 일반회계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일반회계가 2,795억.

○白懿宗 委員; 그러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보완해 주는, 말하자면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어떻게 그 불용액

이 더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대단히?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런데 이 불용액 수준을 가지고 일반회계를 보완해 주는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白懿宗 委員; 됐습니다, 실장님. 뒤 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99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약 6,000억이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白懿宗 委員; 맞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변경이 취소가 되어서 불용이 된 것이 4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왜 사업계획변경을 했던 것이 취소가 됩니까? 이것은 각 국별로 물어야 되겠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각 국별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白懿宗 委員;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실장께서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을 본다면 99년도의 불용액이 약 6,000억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자 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못 나오셨습니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아시나요,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문제? 99년도 여기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99년도 말씀입니까?

○白懿宗 委員; 네, 우리 최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여기에 있습니다. 불용액이 99년도에 145억입니다.

○白懿宗 委員; 변경이 취소가 되어서 불용이 된 것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네.

○白懿宗 委員; 왜 변경이 취소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지금 9호선의 설계비가 기본계획승인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었고요.

○白懿宗 委員; 됐어요, 우리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네.

○白懿宗 委員; 그 다음에 교통사업에 관련한 것은 교통관리실장입니까?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交通管理室長입니다.

○白懿宗 委員; 거기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저희는 작년도 말 291억입니다.

○白懿宗 委員;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월드컵건설사업에 관련한 문제요. 그 다음에 住宅局長도 나와 주시고, 토지계획정리사업 관련해서 나와 주세요.

월드컵 건설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했죠. 얼마입니까?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13억입니다.

○白懿宗 委員;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住宅局長님.

○住宅局長 梁甲; 住宅局長입니다.

○白懿宗 委員; 거기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住宅局長 梁甲; 1,086억입니다.

○白懿宗 委員;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한.....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白懿宗 委員; 거기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114억 2,600만원 규모입니다.

○白懿宗 委員; 네, 됐습니다.

하수도사업 관계는.....

○建設局長 張錫孝; 建設局長입니다.

한 359억입니다.

○白懿宗 委員; 네, 알겠습니다.

企劃豫算室長님, 지금 각 부서 불용액을 대충 보니까 약 6,000억원인데요.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됐던 것이 약 400억 이고요.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이 약 1,080억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해서 3,173억이고요. 거기 기타가 937억 있는데 이 기타라는 것은 어떤 불용액을 말하나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이것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집행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만 會計課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이 결산은 行政管理局 소관입니다.

○白懿宗 委員;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에 대한 불용액 사유가 하나 있고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3,170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937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타라는 내용은 어떠한 명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기타라고 했는데.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예산집행잔액은 여기 주로 공사비 낙찰차액 3,173억으로 분류가 되고 기타는 아마 경상사업의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白懿宗 委員; 경상사업 집행잔액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白懿宗 委員;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참.....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이게 行政管理局 소관인데 구체적인 분류를 行政管理局으로 하여금 白懿宗 幹事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白懿宗 委員; 자료 좀 주십시오.

실장님께 여쭙보겠는데요. 이 고질적인 불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白懿宗 委員; 그러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하느냐, 불용액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들어보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계획수립의 치밀성이 떨어졌었다 하는 그런 문제를 들 수 있고 그 가운데는 사전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미흡했었고.....

○白懿宗 委員; 한 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 잘 해 주셨어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일단 사업계획의 치밀성이 떨어졌었다.....

○白懿宗 委員; 안일무사하게 어쨌든 예산이나 받아놓고 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몇 %나 될까요? 솔직히 대답 한 번 주세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까지 즉 추세를 보면 한 5% 수준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산을 해 가지고 그 재원을 다른 필요한 사업비로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면 그것만큼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재원이 한 연도를 끊어놓고 보면, 물론 이것이 다음 해에 가용재원으로 들어가서 또 예산에 활용됩니다만 그 당해 년도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

○白懿宗 委員; 됐습니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한 번 또는 두 번의 이런 실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예산에도 쓰지 못하는 것들이 사장돼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보고 넘겼습니까?

물론 이것은 실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네요. 副市長이나 監査官에서 이런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副市長님이 안 계시니까 우선 그런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는가 답변해 보시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아직까지는 사실상 그런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집행한 결과를 봐서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돼서 예산이 불용됐다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내 가지고 다음 예산에 각실...국별 그 局에는 실링을 줄이고 사업을 감축하겠다 하는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白懿宗 委員; 그렇다면 지금 99년도의 경우를 보면 약 6,000억이 불용됐는데 그 당시 예산을 9,000억 정도는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산 결과를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획을 숫자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업이 필요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집행과정의 여건이 변화되고 추진 절차가 미흡해서 불용이 됐다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평가가 돼야 마땅하고.....

○白懿宗 委員; 실장님, 다른 얘기 자꾸하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2001년도만은 불용액이 적게,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불용액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해서 할 것이고, 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쉬운 것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2001년도 불용액 예상을 아직 할 수 없지만 전년도처럼 6,000억 정도나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있죠?

왜냐 하면 본위원이 豫算決算特別委員으로서 이번에 예산

을 조정하는 데 참고하려고 그러합니다.

제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委員으로서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고질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께 묻는 것입니다. 또 각 실...국장한테도 아까 물은 것은 정말 종전같은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는 불용사유를 우리가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생긴 불용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다만 이런 공사비의 입찰과정에서 낙찰가액에 따라서 발생하는 낙찰차액 이런 것들은.....

○白懿宗 委員; 그런 것은 당연히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변경 취소 이런 것을 어떻게 검토를 안 해 보고서 그 많은 것을 계획세워서 요구했느냐 하는 문제, 또 만들어 놓고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는 신상에 누를 쥐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어떠한 방법이든지 책임을 물어서 밝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白懿宗 委員;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대로 이런 부

분은 앞으로 절대 없기를 바라고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 관련한 자료, 미집행사유, 미발생된 부분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明玉 委員長, 金成浩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成浩; 白懿宗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東奎委員 질의하여 주십시오.

○林東奎 委員; 林東奎委員입니다.

예산심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女性政策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女性政策官 나오셨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林東奎 委員; 제가 李載震委員이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비 불균형으로 해서 작년 도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林東奎 委員; 그것 다 집행됐나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닙니다.

○林東奎 委員; 그러면 집행이 얼마됐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1,3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林東奎 委員; 李載震委員 질의 안 나온 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 다 집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할 계획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林東奎 委員;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워 가지고는 예산을 드려도 집행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념식수를 신청해서 신청자명단을 통보하고 또 묘목대금을 납부하고 장소를 안내해 가지고 지정된 일시 장소에 식수를 하는데 그게 1만원 상당인데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누가 신청해서 기념식수를 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받더라도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개선하겠습니다.

○林東奎 委員; 環境管理室長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環境管理室長입니다.

○林東奎 委員; 다른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하셨는데 지금 소각장문제하고 또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하는 문제는 지금은 물론 시에서 광역화도 추진하면서 區別로 대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마포에 소각장 설치해 놓은 것도 보면 그게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소각장이나 아니면 자원회수시설이나 또 음식물처리장, 이런 것의 운영이 거의 반도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가동률을 높여 가지고 같이 인접구를 광역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일반적인 소각장, 여기 용량이 막상 그 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광역화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남이 11월 23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천, 노원, 강남 소각장을 광역화시키는 그런 대책으로서, 물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현재 2011년도 기준으로 현재 2011년도 기준으로 서울시의 적정소각 용량산정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권역으로 묶어주어야 됩니다, 1차 작업이.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에 대한 보전을 또 해 주어야 됩니다.

타 구 것을 받으려면 그만큼 재산가치의 하락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처음 출발할 때부터 1개 구가 아니고 마포, 중구, 용산 3개 구가 같이 구청장끼리 협약을 했고 주민들 입지선정위원회 그 대표들이 구성된 데서 현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내년도에 필히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을 해 들어가면서 기존 3개 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광역화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함께 이것이 작전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林東奎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장에서 처리비용하고 매립비용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소각장 처리비용은 톤당 얼마가 들고 매립비용은 얼마가 드느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지금 매립비용은 반입료가 있고 또 여기에서 운반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매립비 조성원가가 있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보면 톤당 4

만 9,500원 가까이......

○林東奎 委員; 매립비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매립비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林東奎 委員; 그 다음에 소각비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소각은 물론 가동률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매립지에 대한 반입료, 톤당 1만 6,327원인가 그것만 일단 받고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林東奎 委員; 아니, 실제 소각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다 포함해서.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래서 실제 비용은 가동률에 따라서 틀립니다.

○林東奎 委員; 물론 그렇지요. 100% 가동될 때 하고 50% 가동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계산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하여튼 3만 6...7,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林東奎 委員; 대략 그렇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林東奎 委員;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본위원회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빨리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질의가 나옵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소각장 운영비용은 톤당 3만 6,000원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수송거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林東奎 委員; 그러면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퇴비화 하고 사료화 하는 비용은 그것은 실제 얼마가 들고 또 매립비용은 얼마입니까? 매립비용은 똑같겠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林東奎 委員; 그러면 처리비용은 얼마?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것이 또 민자유치한 것하고 우리가 공공자원화 시설한 것하고는.....

○林東奎 委員;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서울시가 광역화했을 때에 어떤 계산을 가지고 이 공장을 앞으로 세워서 가동하려고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저희가 공공시설에 톤당 건설비가 2만 3,039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林東奎 委員; 2만 3,039원으로 지금 음식물처리를 하는 데 그 처리비용이 2만 3,039원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林東奎 委員; 그러면 매립할 경우에는 4만 2,000원 정도 들고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4만 9,000원 정도.

○林東奎 委員; 그런데 왜 이것을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매립 비용보다 더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조를 해 달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비용이 조금 드는데 왜 보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물론 그 차이가 발생해서.....

○林東奎 委員; 차이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앞으로 톤당 1만 5,100원씩 여기 지원하겠다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니,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부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林東奎 委員; 그런데 2만 3,039원이면 매립하는 데 4만 2,000원 이렇게 싼데 뭐 하러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1만 5,100원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짜셨으면 원가계산을 해 볼 때 얼마를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서 예산이 서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건설비가 2만 3,000원이지만.....

○林東奎 委員; 아니, 건설 처리비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것은 건설비만 2만 3,039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렇습니다.

○林東奎 委員; 그러면 그것은 처리비용이 아니지요, 토털 해서 따져야지 비용이라는 것이.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울시는 아직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민간시설을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林東奎 委員; 실장님, 안 해 보신 것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소요예산을 14억원을 편성해서 톤당 1만 5,100원씩의 보조를 해 주겠다고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이것이 그래도 민간이 하든 누가 하든 금액이 서야 이 예산이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林東奎 委員; 본위원이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따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에서 푸른환경이라는 데서 하는데 거기에 산출되어 있는 것은 톤당 6만 3,432원이 든다고 그러합니다.

○林東奎 委員; 그래 그 말씀을 하셔야지, 6만 3,432원이 든다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러나 실지로 운영하는데서는 그러나 그 차액을 가지고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톤당 1만 5,100원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건설비에서 얼마씩 나오느냐, 이것을 시정연에 용역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만 5,100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지 자치구에서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林東奎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장님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나왔더라도 그것을 관할하는 총책임자로서 충분히 계산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어야 됩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랬더니 그것이 아주 공교롭게도 강동구 같은 예를 보니까 아까 수도권 매립지 하는 것은 톤당 4만 9,400원, 그 다음에 음식물 사료화하는 것이 한 6만 3,400여원, 이렇게 하니깐 이것이 한 1만 4,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얘가지요.

그래서 시정연에서 용역한 결과가 상당히 근접되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도 톤당 1만 5,100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林東奎 委員; 매립비가 4만 2,000원이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4만 9,474원.

○林東奎 委員; 네, 4만 9,000. 그러면 1만 4,000원 돈이 차이가 나네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하고 비슷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林東奎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14억을 편성한 것을 어디 어디에다가 보조를 줄 겁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일단 저희가 광역화시설이 지금 강동하고 도봉에 있습니다. 다른 곳까지 같이 처리해 주고, 그리고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한 8개소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려고 그러합니다.

○林東奎 委員;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林東奎 委員;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를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2,200억을 집행을 하시고, 78%가 완성이 되어서 금년에 502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낮게 보시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무리하게 500억이 넘는 돈을 내년에 꼭 집행을 해야 되느냐, 나무는 내년에 못 심으면 후년에 심어도 되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위원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앞으로 계속 심고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 기왕이면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 동안에는 목표량을 한 1,000만주 정도 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재임기간 동안.....

○林東奎 委員; 그게 잘못된 겁니다. 시장만 바뀌면 나무수종이 바뀌고 정책이 모두 바뀌어서 자기 있을 때 뭐든지 하려고 하려니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남의 돈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실제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이것은 내가 재임 동안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니까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닙니다, 위원님.

○林東奎 委員; 됐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래서 교목하고 관목비율이 지금 균형을 못 이루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林東奎 委員;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 다음에 이 녹지축의 환경보전 효과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내년도에 위성영상을 우리가 이용해서 실제로 도시녹화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 보자.....

○林東奎 委員;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알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행정관리국장입니다.

○林東奎 委員; 지금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2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는 4/4분기에 집행이 거의 됐어요, 이게 지금 보면. 그런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전부 쓰는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시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 꼭 이렇게 구청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눈이 올 때 곧 눈이 올 겁니다. 눈 치우라고 그러면 안 치웁니다. 어느 구가 잘 치우느냐, 잘 치우는 구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林東奎 委員; 그것은 핑계지요. 왜 그러냐 하면.....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IMF로 인해서 어렵다, 내년 경기가 또 어렵다.....

○林東奎 委員; 그러면 구청장서부터 공무원들 옷을 벗어야지요. 아니,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네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시장이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주어야만 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일종의 경쟁을 붙여서 경쟁하는 논리입니다.

○林東奎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는 쪽지가 왔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200억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아니, 그것은 좀 봐 주십시오. 삭감

하시면 안됩니다.

○林東奎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세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林東奎 委員; 지금 본위원이 서면으로 받은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원수를 공급받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그렇습니다.

○林東奎 委員; 그런데 이게 해마다 올라가는 것이 10%가 아니라 15%, 20%, 40%까지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도 원수수질은 점점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원수수질은 좋아집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원수수질은 다행히도 금년, 작년, 3년간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林東奎 委員;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문제는 좋아졌다면 그 다음 답변이 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정수비용이 이렇게 원수가 자꾸 좋아지는데 무엇 때문에 분말활성탄 이용으로 고도 정수처리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에요, 돈을 31억씩 들어서. 자꾸 원수가 좋아지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 수돗물이 더 좋아진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고도 정수처리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활성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林東奎 委員; 활성탄은 지금 현재 본위원이 91년도에도 수자원위원회에 있었습시다만 그때는 지금 원수에 투입하는약품도 자동화가 안되어서 사람이 삽으로 파 넣고 줄면 안 넣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때 거의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때도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를 했어요.

구의정수장 거기에서 8, 9는 가지고 가는데 원수가 수질이 좋아졌는데 본위원이 볼 때 굳이 정수비용을 높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빠진 거냐, 그래야만 말이 맞는 거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닙니다. 분명히 숫자상 원수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林東奎 委員; 좋아지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만 수돗물의 수질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이런 것은 선진국을 따라간다고 해서 86개에서 105개로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나 서울시민이 전혀 수돗물을 신임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무실에서 생수 먹고 집에서 약수터에서 떠다 먹지 않으면 다른 물 먹는데 이런 식으로 막대한 돈을 계속 투입하면서 수도사업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2년 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명에 한 명이 먹었습니다. 작년에는 1,000명에서 9명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원님이 아다시피 폐놀사건이라든지 또 서울대 김 교수란 분이 이상한 바이러스균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푹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는 PR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PR을 해 가지고 1,000명에서 9명까지 올라온 것을 저희들은 1,000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2% 정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에 가면, 현재 일본이 100에 24명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명에 한 15% 내지 18% 정도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東奎 委員; 앞으로 수도물을 먹는 시민들 프로티지를 올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후관 배관 개량 공사 내년 예산에도 1,400억이 편성돼 있어요.

90년대 초반 해도 1년에 한 3,000억씩 노후관 개량하는데 거의 그 때 15년 이상 되는 것을 개량한다고 해서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사실 누수율은 별로 안 줄어든다 이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누수율도 작년에 4%, 금년에 3.8%로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林東奎 委員; 그러면 작년에 4%로 누수율이 올라간 거죠? 수도물 가정용으로 따질 때 올라간 것에 대한 물값이 얼마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물값으로 따질 것 같으면 1% 올라가는데 130억 이런데 우리가 생산원가로 따질 것 같으면 34억 8,000만원 해서 약 35억입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 수도물 받는 가격으로 할 것 같으면 한 130억 올라갔습니다. 절약이 됩니다.

○林東奎 委員; 1%에 그렇다는 겁니까? 4%에 그런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1%에 34억 8,000만원입니다.

○林東奎 委員; 그러니까 4% 올라가서 130억 절감됐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한 140억.....

○林東奎 委員;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에요, 2,000억, 3,000억을 투자해서 140억 절감을 하니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래도 옛날에는 1.1%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林東奎 委員; 글썄, 그러니까 문제는 도수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쪽도 봐야 되겠고 누수관 노후 송...배수관 개량을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도 유수율이 안 오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수돗물을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上水道事業本部長님께서 권장을 하신다면 각 가정에 직수를 하나씩 넣는데 그것을 시에서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가?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지금 직결급수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창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다행히 직결급수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결급수를 하시면 경제적 이익이 훨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결급수를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되기 때문에 직결급수만 가능한 지역 같으면 다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林東奎 委員; 그러면 지금 수돗물 검사결과를 시민통보제도를 통해서 서울시 전 가정에서 통보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검침원들이 각 가정에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월하고 3월에 각 가정에 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林東奎 委員; 이거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이 7,60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이렇게 쏟아부어가면서 서울시민이 수도물을 불신해서 먹지 않는 물을,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浩; 林東奎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韓植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鄭韓植 委員; 鄭韓植委員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산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모두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企劃豫算室長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딱히 기억이 안 되는 부분은 각 실...국장이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에 企劃豫算室長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관계과장, 관계자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본위원과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짚막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할주민세, 2001년도에는 國稅廳에 소득할주민세 징수를 맡길 계획이 돼 있습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2001년도에요.

○鄭韓植 委員; 몇 월부터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2001년도분에 대해서죠.

○鄭韓植 委員; 그러면 지금 주민세 대폭 증가액이 바로 그것을 감안한 세수증가액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주민세의 신장률이.....
- 鄭韓植 委員; 주민세가 상당히 인상폭이 크죠?
-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 鄭韓植 委員; 반영돼 있는 겁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물론입니다.
- 鄭韓植 委員; 뒤에 담당자들이 얘기해도 내가 알아듣고 빨리빨리 집행하죠.

내년도 國稅廳 징수대비해서 징수율이 75%에서 98% 될 것이다라는 인상분이 반영돼서 세입계상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담당자 어때요? 본위원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영이 안 돼 있죠?

-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國稅廳에서 징수를 하는데.....
- 鄭韓植 委員; 아니, 소득할주민세 징수율이 약 75%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소득할주민세의 징수방법을 개선해서 國稅廳에 우리를 대신해서 징수토록 하고 그 징수비용은 우리가 國稅廳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할주민세는 國稅廳에서 우리에게 통보하게 되면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소득할주민세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國稅廳에 주는 것 아니에요?

-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 鄭韓植 委員; 그러면 國稅廳에서 징수했을 경우에는 약 98%, 99%의 징수율을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득할주민세 징수율 98%와 소득할주민세 75%는 주민세 세수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 세수 예상액이 여기 계상돼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 하면 안 되지.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저희들 징수율은 소득세할의 경우에는 75.19%로 봤고 법인세할의 경우에는 93.33%, 특별징수는 99.77%인데.....

○鄭韓植 委員; 아니, 여기 법인세할은 당연히 99%가 돼야 되고 특별징수분은 100%가 돼야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러니까 소득세할의 징수율은 지금 예산안에는.....

○鄭韓植 委員; 징수율이 75%라고. 그러면 내년에 國稅廳에서 징수하게 되면 99%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세수계상이 돼 있어야지.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行政管理局長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보니까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行政管理局長입니다.

鄭委員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입관계 총괄은 시세 관련해서 저희 稅務運營課長이 전문가입니다. 稅務運營課長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稅務運營課長입니다.

우선 징수율을 답변드리기 전에.....

○鄭韓植 委員; 아니, 계상했어요? 안 했어요? 소득할주민세 國稅廳 징수대비 징수율 인상분 계상했어요, 안 했어요?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반영된 겁니다.

○鄭韓植 委員; 반영이 됐습니까? 그 계상근거 자료를 주세요.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반영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주민세할은 작년, 직전년도의 소득할을 당해년도 5월에 신고하게 됩

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는 것인데.....

○鄭韓植 委員; 아니, 본위원의 질의요지가 여태까지는 國稅廳에서 국세가 결정되면 우리한테 통보하는 데 3, 4개월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도망가버리고 없죠?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鄭韓植 委員; 징수 못하죠? 그래서 징수율이 75%밖에 안돼죠?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저희가 10월말 현재 75%이지만 회계말 되게 되면 95% 정도 됩니다.

○鄭韓植 委員; 회계말도 75%죠. 평균적으로 소득세할 징수율이 75%죠. 그렇죠?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지금 현재 75%는 10월말 현재입니다.

○鄭韓植 委員; 아니죠, 매년 그렇죠.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아닙니다.

○鄭韓植 委員; 맞아요? 대답해요. 75%가 아니란 말입니까?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95% 정도 됩니다.

○鄭韓植 委員; 소득세할주민세가요?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鄭韓植 委員; 소득세할주민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신이 해 봐요.

○地方稅務7級 金海喆; 네, 소득세할주민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종합소득세할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98%는.....

○鄭韓植 委員; 아니, 거꾸로 얘기합니다. 계상 됐어요, 안 됐어요?

○地方稅務7級 金海喆; 국세의 징수율이 98%에 이르는 것은 국세가 현년도에 체납이 되는 부분은 모두 결손조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소득세징수율이 64.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74.6%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약 10% 정도 높습니다.

○鄭韓植 委員; 아니, 그러면 2001년부터는 소득세할주민세를 국세 징수 때 같이 할 거죠?

○地方稅務7級 金海喆; 네, 그렇습니다.

○鄭韓植 委員; 그러면 좀 올라갈 것 아닙니까?

○地方稅務7級 金海喆; 5월에 확정신고 받아서 주민세를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율이 한 95% 이상 됩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세소득할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양도소득세할주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할주민세라는 것은 대부분이 IMF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담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고액체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률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지 소득세할, 매년 5월에 부과해서 신고 납부해서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95% 이상.....

○鄭韓植 委員; 아니, 國稅廳 징수가 동의 됐을 때 징수율이 그래도 좀 올라갈 것 아니에요.

○地方稅務7級 金海喆; 국세에서 내년에 처리하는 방법이 국세고지서와 지방세고지서를 분리해서 각각의 고지서로, 현재行自部하고 國稅廳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鄭韓植 委員; 그러니까 그 껍은 계상이 돼 있느냐 얘기가,

세수 추계를 하는 데 그것은 전혀 고려 안 했느냐는 얘기에
요.

○地方稅務7級 金海喆; 그 부분은 5월에.....

○鄭韓植 委員; 알았어요. 세수추계할 때.....

○地方稅務7級 金海喆; 그것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鄭韓植 委員; 그 근거를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地方稅務7級 金海喆; 네, 알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企劃豫算室長, 사업소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이 내년
에 MT비로 새로 계상이 돼 있죠? 사업소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내년에 MT를 간다고 비용이 포함돼 있더라고.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계상 안 돼 있죠.

○鄭韓植 委員;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鄭韓植 委員; 사업소에는 그러면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시
장의 명에 의해서 다 계상을 했다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은
데.....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소관은 인사과인데 인사과에서 그 예
산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

○鄭韓植 委員; 각 부서별로도 안 되어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1원도 안 되어 있습니다.

○鄭韓植 委員; 네, 알겠습니다. 단 1원이라도 하시지 그랬어
요. 단 1원이라도 했으면 증액을 시켰을 텐데.....

다음에 과년도 세수 추계에 있어서 연 최고치를 적용했지
요? 연 최고치에 더 업된 것이지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고 5년 동안 최고로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

다.

○鄭韓植 委員; 그러신데 97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아니, 98년도 징수율이 어땠습니까?

자, 좋습니다. 됐습니다. 98년도나 2001년도나 세수 과년도 수납액이 큰 요율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 추계를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회는 생각됩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면 세입 추계를.....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10%입니다.

○鄭韓植 委員; 98년도 10%예요?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네.

○鄭韓植 委員; 바로 그 요율을 적용했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과 우리 위원회 몇 분들과 상의를 해서 과년도 수입 수납률을 97년 IMF 전에는 최고의 활황 때입니다. 그리고 98년도 바로 IMF 이후인데 2001년은 그와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아무튼 최고 징수율 적용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고 징수율 15.1%를 적용한 것은 세입 부서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15.1%를 적용한 것입니다.

○鄭韓植 委員; 바로 그 의지를 알아요. 어느 의원 치고 과년도 수납액을 줄여서 삭감해서 적용하라는 의원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위원의 마음이 더 안 좋다고, 과년도 수입을 더 올리라고 그러지 어떻게 깎으라고 그러겠느냐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 경찰청 2000년 예산사용내역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최근 3년간 경찰청 예산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오고 있고 내년에는 어떤 근거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까, 경찰청은?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교통관리실장입니다.

○鄭韓植 委員; 어떤 근거로 예산을 계상했지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법적 근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鄭韓植 委員; 아닙니다, 계상근거, 산출근거입니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산출근거는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경찰청의 요구를 받아서.....

○鄭韓植 委員; 그 요구내역이 있습니까? 요구내역이 있으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장 주세요. 요구내역도 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 준 것은 아니에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鄭韓植 委員; 왜 3년간의 사용실적하고 예산요구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냐 이거예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

○鄭韓植 委員; 경찰청 예산도 이것 한 20...30% 삭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나중에 저한테 설득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공보관실, 학생들 교과서커버 이것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위탁기관에 위탁운영

비를 왜 제로베이스에서 안하고 전년도 대비 몇 % 인상해서 다 주냐 이겁니다.

잘한 데는 잘 주고 못한 데는 덜 주기 위해서 전 위탁기관의 운영비를 20%를 삭감해서 목적 예비비로 목을 변경할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 하면 목적예비비를 사용해서 잘한 데는 더 주고 못한 데는 덜 주는 그런 위탁기관 운영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비 전 기관 20% 삭감이 아닙니다. 목을 변경해서 목적예비비로 이거야말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다음에 과년도 미수액 포상금, 현년도는 없고 현년도는 자치구만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자치구 현년도 지방세 수납실적에 따른.....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100억원입니다.

○鄭韓植 委員; 100억원입니까, 인센티브사업이?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네.

○鄭韓植 委員; 글썄, 이것이 변별력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사업이 자치구에 주는 것은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말이에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100억은 깎고 이쪽 200억은 살려주고.....

○鄭韓植 委員; 김 국장님, 본위원은 2개 다 살리고 싶은 욕망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시정방향이 제대로 자치구에 내려가는 것이지.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누가 깎아야 한다고 그래서.....

○鄭韓植 委員; 누가 그래요? 이게 高 建 市長의 역점사업인데 왜 깎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1차년도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1%밖에 안 준다 말이에요. 2차년도 이상은 5%를 준다 말입니다. 이 요율을 줄이라는 얘기에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鄭韓植 委員; 그런데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金成浩 幹事, 崔明玉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崔明玉; 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鄭韓植 委員;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은 없는데 본위원이 개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월에 낼 것을 ?내년 1월에 내라, 나 5% 먹게?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자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1차년도 미수납액 수납을 게을리 한다 말이에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1%.

○鄭韓植 委員; 게을리 할 수밖에 1차년도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5% 포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3% 이내로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서 차라리 1차년도의 징수율을 좀 높여주라는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검토하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검토해서 본위원에게 회의 끝나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소멸시효 연장을 하기 위해서.....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압류면 조세시효가 연장이 되고요.

또 이게 공개처분 의뢰를 하면 조세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독촉을 하면 조세시효가 또 연장이 됩니다.

- 鄭韓植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니까?
-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직원한테.
- 鄭韓植 委員; 글쎄요, 이것이 자연납부인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때 되어서 내는 사람은 포상금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그것은 안됩니다.
- 鄭韓植 委員; 그러면 어떤 노력을 근거로 해서?
-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어떤 노력을 했느냐 여부를 시의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 鄭韓植 委員;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네.
- 鄭韓植 委員; 이것은 차제에 개정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나오면서 들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폐지용의는 어떻습니까? 법정기금인 줄 압니다.;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 鄭韓植 委員; 압니다. 자치구까지 다 금년부터 확산이 되었지요. 내년 기금 다 설립이 되더라고요. 이것 폐지 건의하세요. 이거야말로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라, 아무 필요 없는 식품진흥기금을 각 시...도 심지어는 자치구, 시...군...구까지 다 운용하도록 2001년도에 하고 있더라고, 이것 폐지 건의를 분명히 하십시오.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네
- 鄭韓植 委員;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제가 본위원이 기금세입세출을 이번에 자세히 봤습니다. 기금사용내역 전액 삭감입니다. 음식업협회중앙회 회장들 외국 놀러 가는 모양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그것은 아닙니다.
- 鄭韓植 委員; 여하간에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사용취지 하고는 다릅니다.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 전국 시장협의회가 있지요. 광역단체장 회의가 있지요?
-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네.
- 鄭韓植 委員; 호적사업.....
-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제 사무입니다.
- 鄭韓植 委員; 호적사업 이것 광역단체장협의회에서 뚝뚝 뭉쳐서 이것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법원 행정처에서 돈을 받아 오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그렇게 해야 됩니다.
- 鄭韓植 委員; 이것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그런데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거든요.
- 鄭韓植 委員; 그러니까 뚝뚝 뭉쳐서.
-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지방자치법은 개정안이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법은 대법원장이 그것을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鄭韓植 委員;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들고 일어 날게요. 우리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도 있습니다. 그 개정건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데모라도 할게요.
-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호적법에 호적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하고 호적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 鄭韓植 委員; 이 업무는 분명히 법원 행정처 업무란 말이에

요. 그런데 힘 있는 단체가......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저도 그렇게 법원업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韓植 委員;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노력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2-108쪽입니다. 노후정수물품 좋습니다, 증액 안 하는 것도 좋은데 1원짜리 하나까지 전년과 동일하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삭감을 하든지 1원이라도 증액을 할 것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도시개발자료 전시관은 예산안에는 기본설계비가 1억밖에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2001년 예산에는 1억뿐이라도 향후에 엄청난 재정소요를 요구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또한 전액 삭감을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답변을 좀 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만 듣고......

○鄭韓植 委員; 주장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잠시만요. 걷고 싶은 거리가 도시계획국이 주관 부서란 말입니다. 다른 부서로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내부간에 그렇게 조율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간의 토론결과는 도시계획국이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었고, 지금 진행중인 상황으로 봐서 그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鄭韓植 委員; 환경관리실로 이관을 하십시오.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내부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鄭韓植 委員; 다음에 목동 중심축 개발에 대해서 본위원이 정확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것은 투자심사대상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네요, 그렇다고 우리 특별회계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백 억원이 투입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우리 邊榮進 局長하고의 논의를 잠시 후에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네.

○鄭韓植 委員; 다음에 女性政策官, 여성재단 설립됐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닙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鄭韓植 委員; 꼭 필요합니까? 조례 통과됐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운영형태가 결정.....

○鄭韓植 委員; 안 돼 있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안 돼 있습니다.

○鄭韓植 委員;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본위원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2000년 12월에 재단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닙니다.

○鄭韓植 委員;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鄭韓植 委員; 계속입니다.

예산편성 후에 상황이 바뀌면 수정예산을 하든지 해야 하

는데.....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그러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늘푸른정보센터에서는 본위원이 문제점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문제 제기한 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鄭韓植 委員; 이의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늘푸른정보센터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鄭韓植 委員;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6-93쪽에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지급 근거를 저한테 해 주시고, 다음에 公務員敎育院도 사이버敎育훈련시스템에 대해서 이것도 투자심사대상이죠? 그렇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南相宇; 네.

○鄭韓植 委員; 총사업비가 명확하지 않아요.

○公務員敎育院長 南相宇; 15억인데.....

○鄭韓植 委員; 총사업비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매년 찢끔찢끔 넣어가지고 도대체 이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누가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특별시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왜 서울시가 본인 자신에게 택지개발부담금을 부담시킵니까? 이것은 맞지않죠, 어떻습니까?

아마 본위원의 질의는 누차 관계공무원들에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금방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암택지개발부담금 10억 2,4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법령에 위배 안 될 겁니다. 맞죠? 좋습니다.

다음에 消防防災本部長, 자료는 왜 안 줘요? 消防防災本部長은 좀 앞으로 나와 서세요.

○委員長 崔明玉; 本部長, 직책과 성명을 대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입니다.

○鄭韓植 委員; 서울특별시 기구 맞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맞습니다.

○鄭韓植 委員; 消防防災本部長은 장관급이 맞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아닙니다.

○鄭韓植 委員;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消防防災本部는 하늘에서 내려온 기구는 아니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렇습니다.

○鄭韓植 委員; 땅에서 솟아난 기구도 아니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鄭韓植 委員;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鄭韓植 委員; 종합방재통합시스템이 불용이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추경을 금년에 했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저희들이 종합방재센터는 불용을.....

○鄭韓植 委員; 아니, 왜 했느냐고요. 왜 불용이 불을 보듯 뻔한데 추경을 했으며, 추경을 한 사업을 왜 불용을 시키냐고요. 추경을 왜 하는지 알죠? 그런데 왜 불용시켰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유찰이 돼서 그렇습니다.

○鄭韓植 委員;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 왜 추경을 했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업체가 많이 참여할 줄 알았는

데.....

○鄭韓植 委員; 필요없는 사업을 2000년에 왜 추경을 했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필요없는 사업은 아니고요.....

○鄭韓植 委員; 2000년도에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아닙니다. 저희들이.....

○鄭韓植 委員; 2000년도에 필요없으니까 2001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아닙니다. 5월에 조달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鄭韓植 委員; 企劃豫算室長, 消防防災本部 예산이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조직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다음 방재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운영, 이 총사업비가 얼마고 연부계획이 얼마고 투자심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사업효과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려주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알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다음에 시민안전체험관, 왜 위원들을 속여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입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당초에는 원래.....

○鄭韓植 委員;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므로만 대답하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行自部에서 60억을 금년도에 기획예산처에 20억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병일 차관님과.....

○鄭韓植 委員; 좋습니다. 여하간 좋은데 예산안에 국고는 한 푼도 없는데 왜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했어요. 전액이 국고인

것처럼. 본위원회도 깜빡 속을 뻔 했어요. 아니, 2001년 예산 전액이 국고사업인지 알았다고. 그래서 이것은 국고니까 당연히 해야지.....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게 아니고요. 行自部에서도.....

○鄭韓植 委員; 아니, 왜 그렇게 표시했냐고요. 왜 위원들을 속여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속인 것은 아닙니다.

○鄭韓植 委員;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설계비 5억 날려요. 45억 아끼려면 5억 날려야 합니다. 企劃豫算室長, 이것 명심하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이것은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됐어요. 국고 받아다 하세요.

다음에 의소대 체육대회 소당 300만원씩입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원래 지난해에는 500이었는데 삭감이 돼서 300이 됐습니다.

○鄭韓植 委員; 300도 많아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것은 기술경연대회를 의소대원들이 인원이 일인당 해 봐야 5,000원, 6,000원꼴도 안 돌아갑니다.

○鄭韓植 委員;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관서 보수...보강공사, 그 다음에 소방관서 보수...보강,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이것은 나중에 담당직원이 메모했다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알겠습니다.

○鄭韓植 委員; 다음에 소화전을 3,500개나 다 해야 됩니까? 물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꼭 다 해야 됩니까?

-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렇습니다.
- 鄭韓植 委員; 아니, 내년엔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지금 저희들이 IMF 때문에 그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상수도요금 부담 때문에 사실 설치를 못했다가 지금 주...정차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소화전 없이는.....
- 鄭韓植 委員; 좋아요. 신월파출소 2000년 12월 개청했죠?
-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렇습니다.
- 鄭韓植 委員; 거기 각종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죠?
-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 鄭韓植 委員; 외상으로 했습니까?
-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15일에 개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鄭韓植 委員; 네, 개청할 계획이죠? 지금 업무를 보 고있죠?
-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아직은 안 보고 있습니다.
- 鄭韓植 委員; 시스템 다 구축돼 있죠? 다 돼 있다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나머지는 다 돼 있고 통합시스템 그것만 안 돼 있습니다.
- 鄭韓植 委員; 이것 말이죠, 채무부담행위예요. 서울시장 허락도 없이 개청하기 전에 다 해 놓고 내년 예산에 따로 요청을 해 놓고.
- 다음에 또 할 얘기가 많습시다.
- 委員長 崔明玉; 鄭韓植委員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 鄭韓植 委員; 네, 알겠습니다.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委員長 崔明玉; 金奇德委員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奇德 委員; 金奇德委員입니다.

金承珪 環境管理室長 나와주시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環境管理室長입니다.

○金奇德 委員; 金承珪 室長께서 참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어제인가 며칠 전에 環境管理室 소관 2001년도 예산 중에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관련 예산 조정을 했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있었습니다.

○金奇德 委員; 거기에서 동의를 했는데 제가 環境水資源委員會 위원님들께는 매우 송구스럽지만 建設委員會를 대표해서 幹事로서 그 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8일에 있었던 環境水資源委員會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소관예산 심의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施設管理公團이 수탁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2001년 세출예산 중 위탁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위탁위운영비 62억 4,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金奇德 委員; 62억 4,000만원을 10억원 감액하여 52억 4,000만원으로 했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리고 시설보수 및 대수선에 소요되는 시설 투자비 12억 2,000만원을 5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5,500만원으로 감액조정 했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면 총액 74억 6,000만원에서 15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약 21%가 됩니다. 그래서 58억 9,500만원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감액된, 이게 중요합니다.

감액된 15억 6,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위원이 문제

가 있어서 파악한 바로는 공원의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4억 1,900만원을 감액, 그리고 施設管理公團 본부 공통경비부담액인 간접관리비 5억 8,000만원 전액 감액, 그 밖에 공원의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대수선비 5억 600만원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金奇德 委員; 이상과 같이 감액된 어린이대공원의 예산조정 심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지방공기업법및공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본부 공통경비를 공단이 대행하는 각 대행사 회계별로 분담하는 간접관리비 5억 8,000만원의 전액삭감 조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행사업 회계별로 공통적으로 계상한 간접관리비용을 어린이대공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여타 대행사업을 간접관리비 부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金奇德 委員; 그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와 같이 밝힌 건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관련규정을 몰랐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닙니다. 이런 분담금 뿐만 아니라 인건비 다 불가피성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때는 제가 직접 답변드린 것보다 관련 과장이 내용을 또 소상히 알기 때문에 公園綠地課長이.....

○金奇德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또는 형평성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법적근거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金奇德 委員; 당연히 타당성이 없다면 이런 법적 근거까지 대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른다면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環境管理室 예산 중 施設管理公團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제주 여미지식물원의 경우에는 간접관리비를 조정하지 않은 것보다 정면 대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미지식물원도 간접관리비를 조정해야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위원님,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이 감액된 것도 동의를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동의는 물론 없습니다.

○金奇德 委員; 어떻게 마지막에 예산심사하고 동의를 있어야 되는데.....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증액에 대한.....

○金奇德 委員; 증액에 대한 건만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이의 제기를 했어야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러나 저희가 더 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다, 물론 삭감부분에 대한 동의는 안 구하셨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면서 원칙적인 구두 동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奇德 委員; 됐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런 것을 법적으로 따지고 끝까지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

각합니다.

○金奇德 委員; 됐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국장님들이 됐다고 해도 계속 추가답변 하려고 애를 쓰시네요.

또한 관리인력에 대해서 감액된 인건비 4억 1,900만원은 行政自治部 2001년도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개인성과급 1억 1,500만원이 전액 감액됐고, 또 해마다 서울시와 行政自治部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의거, 기관 성과금으로 예비비에 편성된 2억 6,300만원이 또한 전액 삭감 조정 되었고, 동물사 개선공사의 마무리로 2001년부터 증원된 사육사 등 2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본위원이 예산을 삭감한 것에 가급적이면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귀속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직원에 한하여 다른 직원들과 달리 개인성과급 및 기관성과급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환경관리실 소관의 시설관리공단 산하 사업장인 제주 여미지식물원의 직원들까지 형평성 문제가 제시될 것은 분명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전체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등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것까지 예측할 수 있겠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金奇德 委員; 시설투자비, 즉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투자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앞서 밝힌 어린이대

공원의 일상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상 경비에 대한 감액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金承珪 環境管理室長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성격에서는 일부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나 기타 법적으로나 꼭 필요한 것은 다시 반영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것이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심사하는 과정에 이루어졌어야지,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삭감해야 될 판인데 이런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삭감을 주장하는 이런 모순의 논리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감사합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金奇德 委員;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마포자원회수시설 2001년도 예산 90억 삭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되었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된 이유가 주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일부 의원님 말씀은 기존에 건설된 노원, 양천, 강남 자원회수시설도 지금 용량이 남아돌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광역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쪽에 마포 자원회수시설 즉 광역시설을 하는 것이 이것이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시설부터 먼저 광역화하면서 이것은 좀 시기를 늦추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반론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0년도 예산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었고 내년도 사업이 있어야지만 금년에 조달청에 발주의뢰가 되어서 내년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면 서울시에서 최초로 아주 모범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3개 구청에 구청장들이 다 협약서를 97년도에 이미 체결했고, 입지도 마포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1...2 매립지 사이가 가장 적정하겠더라고 해서 정해 주신 것이 금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金奇德 委員; 잠깐만요,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꽤 있었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제가 지금 그 입지가 선정된 해당지역 시의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오늘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왜 예산이 그 부분에서 삭감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것을 먼저 인접 자치구가 공동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예산이 금년도에 잡혀 있는데 착공조차 못하면서 어떻게 노원, 양천, 강남을 먼저 타구 것을 받으라고 하겠느냐, 이것은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포 것이 3개 구가 착공이 된다면 훨씬 노원, 양천, 강남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 또 내년도에 우리가 피해보상을 어떻게 적절

히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마포자
원회수시설 착공과 또 우리의 3개 기존시설의 공동이용을 동
시에 추진하는 것을 밀고 나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奇德 委員; 저는 필요하고 안하고 그것을 묻지 않았고,
왜 삭감이 되었는지?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견해의 차이였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런데 그 견해의 차이였다, 지금 1일 소각량
이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900톤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일단 설계를 900톤으로 들어가려
고.....

○金奇德 委員; 지난번에 기술입찰심의회 때 참석을 해 보
니까 676톤이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것은 실 처리량입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면 나머지 약 220여톤 것은 다른 3개 구
것 말고 앞으로 또 용량을 좀 늘려놓았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기저기 지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구 것을 받아들여
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金奇德 委員;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
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한 분 의원만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
는데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은 2005년도를 기준해서 정확하게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을 제외한 소각량을 따진 것입니다. 거기에 환경부에서
시설용량이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676톤을 소각을 하려면 시설규모는 900톤이 나오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지금도 주민들께서는 한 730톤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金奇德 委員; 직접 제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지역현안이 기 때문에 이 문제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절대 과대용량이 아닙니다.

○金奇德 委員; 그래서 제가 왜 삭감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번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될 때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로 공이 넘어왔는데 반영이 안 될 때에는 마포구 쓰레기를 검단에서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포구 것만 딱 안 받는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의 하나의 그러한 예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2000년도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이 없어서 착공을 못했다 하면 서울시가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것도 아마 잘못하면 서울시 전체 쓰레기에 대한 반입거부 문제까지 거론되지 않겠느냐.....

○金奇德 委員; 마포구만 특별히 안 받는다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렇게 반환하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마포에 대한 제일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마포, 중구, 용산, 광역처리권 더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

○金奇德 委員; 그러면 마포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할 이유는 없겠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金奇德 委員; 아니, 왜냐 하면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마포구 것은 검단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법적 근거 그것보다도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운영의 방향이 혐오시설을 기피하거나 하는.....

○金奇德 委員; 공이 우리 예결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감사합니다.

○金奇德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발언대가 있는 데는 앉아서 하시고 다 보이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6시가 넘어서 피곤하실 텐데.

토정길 확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정길은 마포구 신수동에 신석초등학교에서 화력발전소간 건인데 수년 전부터 한의사회하고 마포구청간 의견이 달라서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불과 1·2년 전에 타협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마포구청 안으로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공사가 99년 4월 30일 실시계획인가가 났고 2000년 3월 20일 또 2차 공사구간이 착수가 되어서 7월 15일 부분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길이가 얼마나 하면 약 1,882m, 약 1.8km이고 그것과 관련된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등 각종 매체를 통하고 또 관련 부서에 찾아오고 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민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金奇德 委員; 그런데 타당성은 다 인정합니다. 金禹奭 室長께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그 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서 빨리 뚫어야 되고 그 동안 미진하게 해 오면서 그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해서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 도로가 없는 것보다는 있음으로써.....

○金奇德 委員;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지금 현재 투자우선순위 면에서는 높은 사업입니다만.....

○金奇德 委員; 그것은 압니다. 그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작년 2000년도 예산을 짤 때 그 해당지역 시의원인 金寬洙議員하고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아, 의원님 이것 조금 10억 주어봤자 뭘 합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해서 사업비가 크니까 내년엔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2001년에 왔어요.

그래서 기획부서인 건설국에 마포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건설국에서 요구했으나 미반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은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간 예산조정을 해서 겨우 30억이 예산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는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도로사업으로서 그 동안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수년 동안 야기했고 민원의 소

지가 많기 때문에 70억을 증액을 해서 100억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이것은 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별도로 예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리고 지금 주인을 못 찾은 것이 하나 있는데 월드컵과 관련해서 먹거리 명소 특화사업 관련 부서 국장이 누구입니까, 추진 부서, 보건복지국입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총괄적으로는 월드컵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면 일단 추진단이지요, 건설단이 아니고?

○文化觀光局長 崔頌; 저희 문화관광국 산하에 월드컵추진단이 있습니다.

○金奇德 委員; 밝혀 주십시오, 누구신지.

○文化觀光局長 崔頌; 文化觀光局長 崔頌입니다.

○金奇德 委員; 월드컵 지역의원인데 자주 좀 만났어야 될 텐데 유감스럽네요. 아까 위원님들도 마포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월드컵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안 된다는 것은 저로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다행히 그것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어서 주변도로나 환경공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역의원으로서는 늘 다른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틀에서 놓고 볼 때 지금 각종 도로건설, 또

환경, 하천 정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이벤트행사, 홍보, 숙박, 교통 등등해서 월드컵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각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점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월드컵에 관련된 예산이라면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방문할 것이고 우리 나라를 소개할 기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통해서. 그러면 인근지역에 최소한 우리 월드컵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컵 볼만 잘 차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주민들이 참여만 많이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쉬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변환경은 쉬는 곳으로 보고, 즐기는 것은 축구 하는 광경을 보고 먹는 것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와 맞물려서 어떤 특화사업을 월드컵과 관련해서 해야 될 텐데, 특히 먹거리 명소에 대한 특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頌; 현재 먹거리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별도로 고려한, 계획 세워본 것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월드컵추진반에서 하면 이런 것을 保健福祉局에 건의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 그러한 명소, 마포는 옛날에 주물럭입니다. 외국인들 주물럭갈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화지정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드컵지역에 어디를 가면 무엇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세계에 홍보할 근거자료도 전혀 없을 뿐더러 그런 대상도 없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뒤에 계시는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 아마 인정을 하시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네,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용강동에 주물럭골목에다가 먹거리명소 특화사업 요구를 했습니다. 불과 예산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음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온국민이, 또 高 建 市長 이하 관계공무원이, 또 서울市議會 議員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판에 먹거리명소사업 그것 해서 세계인에게 알리고 같이 즐기자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 것은 관련 책임자의 무기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타당성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검토 자체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金奇德 委員; 다른 부서에, 그 案이 올라온 데가 어디입니까? 저 뒤에 마포구청 직원 이리 와 보세요. 專門委員, 가서 어떤 부서에서 요구했는지.....

保健福祉局長,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金奇德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 텐데 마포구에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정도는 같이 맞물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당하다고 인정하시죠?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金奇德 委員;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어차피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企劃豫算室長님과 이 문제를 한 번 오늘 내일 사이에 번민을, 고민을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頌; 네.

○金奇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수고하셨습니다.

金成奎委員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奎 委員; 金成奎委員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자리 비어 있는 한 석은 어느 분 좌석이에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政務副市長…….

○金成奎 委員; 나는 또 市長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개가 넘지만 시간관계상 딱 한 가지만 질문할 텐데 이 부분은 워낙 우리 시민들의 아주 엄청난 이런 문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市長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중화장실 좀 깨끗하게 만드는데 69억을 쏟아붓고, 당연한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하는데 인센티브 포상금 해 가지고 170억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좀 빨리 시장 불러와요. 시간이 없어요. 질문시간도 한정돼 있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시세 징수하는 직원들은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체납된 시세를 당연히 징수하

는 것은 그 사람의 당연한 임무죠?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물론입니다.

○金成奎 委員;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체납시세 징수하는 데 인센티브 주고 포상금 주고 하는 데 170억 정도를 1년에 쏟아부어요?

그리고 화장실 25개 짓는데.....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인센티브 사업비로 100억, 그리고 포상금으로 133억.....

○金成奎 委員; 이것 저것 합해서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25개 짓는데 69억 갖다가 쏟아부어요? 이것은 시장 개인비용으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전부 다 들어가요. 시장 빨리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요. 어서 빨리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金成奎委員님, 죄송합니다만 企劃豫算室長이 답변.....

○金成奎 委員; 지금 죄송 죄송으로 통할 그런 게 아니에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企劃豫算室長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金成奎 委員; 아니, 어떻게 해서 화장실 25개 짓는 데 69억, 20평짜리 화장실 하나 짓는 데 3억 2,400만원씩 갖다가 쏟아부어서 짓는다? 도대체 이게 뭐니까?

보니까 高建 市長께서 이것 뭐니까, 2001년 새서울시정의 기본틀, 좋아하고 있네.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 뭐 실천과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한다? 이런 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해 주고 도와주는 겁니까? 고통 주고 피해 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답변을 듣겠다는 거예요.

저 천백만시민의 대표입니다. 개인 김성규가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대표로 와서 이 어이없는 이런 광경을 보고 이런 예산안을, 세상에 이것을 예산안이라고 저희 의회에 제출합니까?

당연한 월급받고 공무원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자기 맡은 바 분야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안 해요? 안 하고 왜 자꾸 체납됩니까?

그러면 실장님, 답변하실래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金成奎 委員;市長은 어디 갔어요? 어디 계세요? 답변하실 거예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지금 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만 아는 대로, 작년도도 좋아요.

(「735명입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金成奎 委員; 735명? 그런데 도대체 이것 보세요, 이렇게 100만원 이상 짜리가 대략 얼마인지 그런 것도 지금 그렇게 그러니.

본위원이 조사하고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시세체납액이 약 1조 한 4,000억 정도.....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1조 1,800억 정도.....

○金成奎 委員;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서울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6조 300억입니다.

○金成奎 委員;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걸어서 부채만 갚아도 이자가 얼마나 절약됩니까? 1조 1,000억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예요? 그 이자 받아다가 이렇게 화장실 25개 짓는

데 69억 쓰라는 게 아니고 6평짜리, 5평짜리 서민층 사는 서민촌에 가보세요. 간이화장실 시설도 안 하고 개선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한 그런 화장실 가 보시란 말입니다. 이런 체납된 시세 이자만 걷어도 그런 데 화장실 수백 개는 만들어 주겠네요, 개선해 주고.

빨리 답변해요. 내 말 더 길어지기 전에. 100만원 이상 몇 명이나 되냐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우선 지금 공중화장실 문제는.....

○金成奎 委員; 화장실 문제 말고요.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 숫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냐니까, 대략 숫자도 모릅니까? 1조 1,000억에 100만원 이상 해 보라니까, 그러면 대충 나오겠네. 자꾸 시간 가는데.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이 체납시세 징수하는 최고책임자가 어느 부서 누구예요? 참, 잘났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委員님, 行政管理局長입니다.

○金成奎 委員;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숫자가?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1억은 745명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으십시오. 100만원은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 금년에 책정된 최저생계비가 한 가구 당 얼마예요? 최저생계비가 얼마냐고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몇 인 가족 기준 이야기입니까?

○金成奎 委員; 4인 가족 기준으로 합시다.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94만원입니다.

○金成奎 委員; 100만원이면 4인 가족이 한 달 먹고 살 돈보

다 더 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런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지. 1억 이상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나? 1억 이상 체납한 사람
들하고만 같이 어울립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行政管理局長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억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빨리 봐요. 100만원 이상 짜리가 몇 명이 되
는가? 도대체 몇 만명입니까?

그러면 단위를 좀 올려볼까요? 500만원 이상 짜리는 몇 명
이나 돼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전체 체납자가 195만명 정도 됩니
다.

○金成奎 委員; 그러니까요. 1억 이하는 돈이 아납니까? 500
만원 이상 짜리는 대략 몇 만명, 1,000만원 이상 짜리는 몇
만 명, 5,000만원 이상은 몇만 명, 1억 이상 짜리는 칠백 몇
십명.....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1,000만원짜리는 1만 1,900명 정
도.....

○金成奎 委員; 그러면 그 자료 분량이 대강 얼마나 될까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5,890억원입니다.

○金成奎 委員; 아니, 1만명 이상 저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1만명이니까 굉장한.....

○金成奎 委員; 라면박스로 몇 개나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라면박스로 하나야 더 되겠습니까?

○金成奎 委員; 최소한 1,000만원 이상 짜리 그 정도는 봐야
되는데.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1만 1,297명.

○金成奎 委員; 내일까지 해 줄 수 있어요? 그 잘난 사람들 명단 좀 보게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만들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내일까지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셔야 돼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네, 알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1조 1,000억 이상 되는 이 당연히 내야 될 세금, 그렇죠? 또 이 세금을 당연히 징수하고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당연한 임무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우리 공무원들은 왜 노력을 안 합니까?

그래서 1조 1,000억원이라는 이 체납된 시세를 걷어들이는데 몇 십억을 1년에 인센티브 포상금을 준다? 이것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실장님에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金成奎 委員; 묻고 싶진 않는데 여기 이 자리에 市長이 나와서 반드시 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市長 개인 사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박수쳐 줍니다. 왜, 선출직이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선출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아니, 국장 들어가시라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제 소관입니다.

- 金成奎 委員; 소관이든 말든 들어가시라니까.
-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제 소관입니다. 企劃豫算室長 소관이 아닙니다. 인센티브사업비 100억 얘기하시는 겁니까?
- 金成奎 委員; 여러 가지라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체납시세 징수 포상금 개인에게 주는 것과 자치구별로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사업비로 주는 131억 5,000만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金成奎 委員;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그런데 그 가운데 징수 포상금은 조례로 지급해야 한대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줘왔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례개정과 병행해서 검토를.....
-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成奎 委員; 이 인센티브 사업, 아니, 체납시세 징수하는데 인센티브 그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용어도 거기에다가 붙이지 마시고 그 조례도 폐지해 버리고 이 예산도.....
-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하도 받기가 어려워서.....
- 金成奎 委員;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도 100% 삭감해 버리고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지어버렸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에 14개를 또 짓겠다?
- (「8개입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 14억 들여서 내년에 8개 짓겠다, 그것 짓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 (崔明玉 委員長, 金成浩 幹事와 司會交代)
- 委員長代理 金成浩; 金成奎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黃好淳委員님, 하십시오.

○黃好淳 委員; 저는 자료요구만 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가져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여기 있는 것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2001년도에 실시한 사업 투자심사 결과 심의내용 중에서 회의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심의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건별로 그 내용을 부적격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 조건부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자세하게 주세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알겠습니다.

○黃好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浩; 安秉昭委員,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李成浩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成浩 委員; 李成浩委員입니다. 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습니
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납시세 100억은 우리 행정 자치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했고 우리 국장님 동의하셨고 입장 변화는 없는 것이지요? 그때 속기록에 동의를 한다고.....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동의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려 놓고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다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이 삭감 쪽으로 나갔고 또 예산의 최종적인 승인은 의회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정을 할 따름입니다.

○李成浩 委員; 그리고 해 보니까 올해는 인센티브 포상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잖아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하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체납시세 쪽보다는 현년도 납기내 징수율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러면 체납도 줄이고.

○李成浩 委員; 우리 위원회 때하고 입장이 좀 바뀌었네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저희들로 나름대로 그 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李成浩 委員;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그것도 계수할 때 충분히 들어보고 그때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1억원 이상 시체납자 명단을 냈는데요, 오늘 낸 자료하고 지난주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된 사람들만 모은 것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그 동안에 계속해서 체납 처분을 했던.....

○李成浩 委員; 그 동안에 명단에 있던 분들이 빠지신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은 체납했던 것을 낸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그 중에 낸 사람도 있고 결손처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빠졌을 겁니다.

○李成浩 委員; 여기 보면 1억원 이상도 우리가 조치를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하거나 신용정보 제공을 하거나 출국 금지하거나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안한 것도 있지

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워낙에 체납되는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고민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렇거든요.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당초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만들 때.....

○李成浩 委員; 길어지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5년 동안 체납시세 받은 것을 평균해서 그 이상 받은 액수의 30%를 구청에 주겠다, 그것이 인센티브사업비입니다.

○李成浩 委員; 아니, 글썄 별로 효과도 없고 지금 일선구청에서는 구비는 제법 열심히 걷는데 시비는 별로 적지 않는 것이 또 현실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보면 구세 징수율이 시세 징수율보다도 낮기내 것이 높다.

○李成浩 委員;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네.

○李成浩 委員;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세사무소를 별도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을 서울시에서 통제할 자치단체장 등장 이후에 수단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실장님, 조정교부금을 보니까 3개 구는 보통 교부금 지출이 안 되고 있지요, 교부가 안 되고 있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李成浩 委員; 원래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인가 거기에 주민세하고 50%, 그 다음에 기타 목적세의 경우에는 각각 몇 %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의 5%를 교부세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교부금 재원으로 하고 그 가운데 10%는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李成浩 委員;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일선구청에 페널티 제도도 한꺼번에 줌, 지금 가산제도는 있거든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서 총액은 어차피 우리가 구해 주어야 되니까, 그것을 교부금 조례를 연구해서 우리 국장님 연구 잘 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좀 만들어서 실제로 조정교부금 자체를 큰 것을 가지고 구청에 많이 제대로 징수율이 높은 데를 비교해서 평균 잡아서 가산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원천적으로 구의 시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좀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 쪽으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페널티 분야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통교부금 교부산정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그쪽 보통교부금에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특별교부금 교부에 있어서는 그런 페널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李成浩 委員; 특별교부금은 시장 마음 내키면 주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이미 그런 재원으로 쓰라고 특별교부금은 10%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깐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 동안에 그런 점이 반영이 안 되었으면 그것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주어야 되겠지요. 제도상 문제

가 없으니까 활용하면 되는데 조정교부금을 가지고도 조정교부금액이 올해 1조 3,000억 가량 되지요?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李成浩 委員; 그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효과가 클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거기에서는 교부금 조례에 보면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하는 요소별 산정기준이 나와 있고, 또 기준재정수입을 산정하는 공식들이 딱딱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成浩 委員;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표가 있어요. 이 표에 그런 점을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95년도에 개정된 이래로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세징수액에 따른 측정단위를 놓고 항목을 놓고 또 단위를 놓고 그렇게 해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그것을 방법상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국장 질의 때 할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 재원 가지고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시가화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어 있는 강남지역이고 강북지역하고는 기본적인 소요액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측정표에는 별표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조정교부금 산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는 별표1이 어차피 자치체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런 실정에 맞게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정하는 별표1 자체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네, 보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표 자체를 바꾸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나 또는 시세징수 문제나 더 나아가서 각 실...국별로 구청에 일선행정지시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단위 계량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과감할 수 있는 것까지를 동원해서라도 어차피 일선구청을 통제하는 것은 예산하고 인사권일 텐데, 인사권이야 지방자치법상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그나마도 예산 주는 것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그런 점을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금 산정을 구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반영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행정관리국과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바쁜 시간이어서 일단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金承珪 局長님, 마포소각장 90억원은 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環境管理室長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절대 있어야 됩니다.

○李成浩 委員; 그리고 마포소각장이 마포, 용산, 중구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마포, 중구, 용산 3개 구 이용시설입니다.

○李成浩 委員; 그렇죠. 제가 환경관리실 소관업무 상임위원회에 있었을 때에 주장했던 바이기도 한데 아까 동료위원 주

장 말대로 여러 위원이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소각할 수 있는 양하고 현재 시설하고 있는 마포용량하고는 갭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수자원에 전반기 때 같이 했던 많은 동료 위원들이 공감했듯이 예전에 1구 1소각장 정책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광역화도 못하고 있고, 또 그 연장선장에서 하다 보니까 3개 구의 용량만 계산하고 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으로 한편으로는 지금 목동하고 노원 회수시설이 있고요, 강남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포 이 정도 네 군데 정도 만들면 서울시에 필요한 소각용량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커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저희가 지금 한두 군데는 더 해야 되고.....

○李成浩 委員; 노원이 800톤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李成浩 委員; 목동이 500톤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시설규모가 400톤입니다.

○李成浩 委員; 왜 이게 400톤입니까? 기존의 것은 뺐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것은 완전히 폐쇄가 되었습니다.

○李成浩 委員; 폐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포가.....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강남은 900톤이고요.

○李成浩 委員; 강남은 900이고 마포가 1,000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닙니다. 1,000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중간용역을 보니까 실제 처리하는 용량이 676톤이기 때문에 산정기준을 900톤 이하로 됩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면 예전에 700톤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

지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900톤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글썄, 그래서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소각장을 각 구별로 하나씩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소각장도 그 구만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면 광역화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를 놓고 그 지역의 어느 소각장으로 소각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 용량을 정해서 가야 된다고 누차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런데 지금 하시는 계획으로 보면 되는 데부터 지어가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밖에는 안 들려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닙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 서울시 적정쓰레기.....

○李成浩 委員;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에 보면.....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내년 연초부터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충 중간 그림이.....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쓰레기처리 종합5개년 계획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원화하는 것도 있고 쓰레기자원화시설도 있고 실제로 소각할 수 있는 양산적 한계, 환경실 산정한 게 3,000여톤 정도 되잖아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네, 중간보고로는 3,630톤 정도.....

○李成浩 委員; 지난번에는 3,200톤으로 보고받았었어요. 하여튼 3,000여톤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이 추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쓰레기처리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의 준비정도로 봤을 때 대략 2,000에서

2,500톤 정도 소각량이라면 서울시내 장기적으로 봐서도 충분한 양이라는 게 위원들의 종합판단이고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소각장 규모하고 현실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곳 해서 각 25개 구청을 각 소각장으로 연결시켜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포의 경우도 3개 區만 끌고 갈 게 아니고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이런 區까지 다 연결시켜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를 정확하게 설득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가지고 가야 나중에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광역화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 노원이나 목동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뭐니까? 서울시가 우리 區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러면 용량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줄이자고 했는데 안 줄였다 이것 아닙니까?

결국 서울시는 우리 區만 쓰게 하지 않을 속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들만 쓸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용량을 크게 만든 것 아니냐, 예산낭비 아니냐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마포구도 3개 區만 할 거라면 아예 3개 區 측정단위로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원래 애초에는 1,400톤 규모로 잡았었죠? 그러다가 점차 줄어가지고.....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니, 처음부터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실장님 있을 때도 1,200톤으로 했다가 그 전에 더 많았었어요. 즉 줄어 온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소각장 정책에 일관성도 없고 시민의 신뢰도 못 받는 것

이고 기이 건설돼 있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도 설득할 수가 없어서 광역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각 소각장 건설하는 인근 주민들 똑같은 소리가 커집니다. 광역화도 안 되고, 시설용량 크게 해 놔가지고 예산낭비만 초래되고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전체에 맞는 계획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의 의지로 천명을 하고 기이 건설된 주민에 대해서는 정말시장이 정중하게 제대로 사과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쓰레기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소각규모의 최소한으로 잡아서 간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3개 區하고 나머지 3개 區에 있는 소각장하고 그러면 25개 區에서 6개 區 뺀 19개 구청은 소각 안하고 다 매립하는 겁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아니죠, 구로는 일단 광명으로.....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그런 계획 말고 발전 이상의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 광역화 계획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연차별로 그 區들이 권역이 형성되게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노원같은 데 처음에는 한 3개 區가 쓰다가 그 다음에 2000 몇 년도 가서는 재활용이 늘어나면서.....

○李成浩 委員; 실장님, 지금 마포하고 또 어디에 건설할 계획이에요?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것은 아직 안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이 나와야지, 마포는 일단 3개 區.....

- 李成浩委員; 반절 이상의 區가 지금 대책이 없어요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그 다음에 한 2개 정도 지역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李成浩委員; 기피시설이라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솔직하게 접근하는 게 해결방안입니다.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물론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成浩委員; 25개 구청에서 반절 이상의 區가 소각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 매립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천명을 하세요.
- 그리고 건설 가능한 區만 건설하겠다는 자치구에 대해서 용량만 예상해서 그에 맞게 시설하는 게 좋습니다.
- 지금 똑같은 현상이 목동, 노원, 강남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준공하고도 지금 시험가동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 李成浩 委員; 시험가동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시험가동도 얼마나 늦어졌어요.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제가 그것 때문에 주력을 했습니다만.....
-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봐도 일관성이 없어요.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위원님, 과거에 다소 그러한, 물론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 李成浩 委員;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都市計劃局長님, 잠깐만요.

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수립용역이 25억 들어가 있죠? 3년 전에 세분화계획 용역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그 25억은 실제 주거지역 세분화의 매뉴얼이 나와서 각 區에서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침이 확보된 다음에 각 區別로 실제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區別로 평균 1억입니다만 區別로 주거지역 면적 배분에 따라서 많게는 1억 3,000, 적게는 8,000만원까지 할당될 예정입니다.

○李成浩 委員; 아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98년도 예산인가요? 3억 세분화 예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그 작업의 결과가.....

○李成浩 委員; 그것은 그 용역을 해서 성과품이 그 바탕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네.

○李成浩 委員; 그리고 그 배분은 1억 균등하게 안 한다는 말이죠?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네, 주거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李成浩 委員;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을 잘 해 와서 그런 곳은 상대적으로 적고 강북에 이런 복잡한 주거지역도 많고 복잡한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저희들은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라기보다 면적기준으로 했습니다. 결국 주거지역 세분화의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색깔을 세분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제1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면 면적기준밖에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면적기준 이외에 각 區의 재정형편도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배분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예를 들면 종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이 정한 각종의 도시계획기법들이 다 동원돼 있는 區 거든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미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도 있고 이미 또 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만 풍치지구 경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지구도 있고요.

또 다른 역사문화지구 등등의 각종의 규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 주거지역이면 무조건 1, 2, 3종 다 얹어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등등에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다 준비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면적만 보고도 다 서울시 갖다놓은 매뉴얼만 집어넣으면 그 용역이 나오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주거지역 세분화작업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까지 과학적이고 계량적이고 정상적인 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매뉴얼 작업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게 되고 그 표에 의하면 면적기준이 제일 좋은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 자체에 대한 실제 검증이나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말씀 주신 대로 각 區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

산배정은 더욱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네, 알았습니다. 지난번 91년도인가 구청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처럼 똑같이 쥐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네, 고맙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리고 우리 住宅局長님.

○住宅局長 梁甲; 住宅局長입니다.

○李成浩 委員; 재개발기본계획 언제 만들어졌죠?

○住宅局長 梁甲; 96년도에 했고요. 저희가 지금 建設交通部에 올라가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李成浩 委員; 재개발기본계획이요? 내년 상반기에 확정된다고요?

○住宅局長 梁甲; 네,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요.

○李成浩 委員; 도심재개발 말고 주택재개발이요.

○住宅局長 梁甲; 주택재개발은 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하려면 2003년이 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98년도 6월입니까? 97년 6월입니까?

○住宅局長 梁甲; 98년 10월인가 그 때 기본계획 고시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새로 재개발법이 개정돼 가지고 서울시의회는 언제 통과됐죠?

○住宅局長 梁甲; 제가 그 때 여기 없었는데 98년 초쯤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李成浩 委員; 邊 局長님, 그 때 98년 초였습니까?

○住宅局長 梁甲; 제가 98년 8월에 왔거든요, 그런데 98년 10월 29일에…….

○李成浩 委員; 그 때 기본계획 의회 승인하면서 도시재개발 법 개정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98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었죠? 그래서 98년 6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 작업해 온 것 아닙니까?

○住宅局長 梁甲;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다른 시...도의 경우에 이런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시...도 있습니까?

○住宅局長 梁甲; 그것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李成浩 委員;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住宅局長 梁甲; 아, 그래요?

○李成浩 委員;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은 당시 의회 통과될 때도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시한은 정해져 있고 해서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간에 보완하기로 하고 저희 의회에서 처리가 됐는데 지금 서울시 住宅局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5년마다 변경하게 돼 있으니까 5년 후에나 기본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일선 구청에 재개발 입안 자체를 못하도록 안내하고 계시죠?

○住宅局長 梁甲; 왜냐 하면 아무래도 이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이에요.....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요.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처음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시한이 정해져 있고 해서 잡아서 처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완할 기회를 갖겠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 邊 局長이 住宅局長 시절 때입니다.

그래서 하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치구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도록 계획은 안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것을 보완하겠다 그러니 문제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법정시한도 있고 하니 처리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동의를 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住宅局長 梁甲;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럼요, 제가 속기록 확인하고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5년 지나봐야 그 때 가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자치구 입안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區가 제가 알기로는 5개 區인데 실무자 말로는 3개 區래요

○住宅局長 梁甲; 우선 위원님이 속해 있는 종로구에서도 올라오고 했는데요.....

○李成浩 委員; 고정불변으로 볼 이유는 없잖아요. 좀 절차가 建交部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하는 복잡한 절차는 있다 하더라도 타당성을 검토해서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게 돼 있으니까 중간에 변경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住宅局長 梁甲; 경미한 사항은 지금.....

○李成浩 委員; 경미한 사항은 建交部 처리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라도 기본계획 변경사유가 있다면 중간에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住宅局長 梁甲; 그런데 자꾸 도시계획이 자주 변경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李成浩 委員; 아니,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벽하게 됐을 때는 변경되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법의 변화로 새롭게 제도를 준비한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그 동안 그 일

해 온 것도 아니고 처음 하면서 법에 정해진 시한이 있어서 맞추면서 급하게 한 일 가지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보완을 해야지.

○住宅局長 梁甲;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니까 저희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지금 구체적으로 현안이 되어 있는 곳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5개인데 서울시의 기본입장, 도시기본계획에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은 아예 입안할 수 없다고 일선구청에서 주민들 안내해 가지고 아예 엄두도 못한 구역도 포함하면 꽤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재개발을 할 수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라고 한다면 검토해서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과 이것과 상관 없이 안 된다고 회시를 해 버리거나, 아니면 재개발기본계획 구역 안에 들어갈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노력을 해 주시거나 하셔야지요.

지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정작 2003년 지나고 나서 그 동안에 주민들이 준비를 해 왔다면서요, 여러 가지 노력도 기울이고. 그런데 그때 가서 기본계획대상에도 포함 안된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때 가서도요.

○住宅局長 梁甲; 위원님 말씀을 알겠고요, 제가 아까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 그러니까 당시의 의회 심의과정에서 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경가능 여부해서 건교부에 협의하고,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럼요, 법에 5년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

게 되어 있고 모든 도시계획이 마찬가지로 아납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나마나?

○住宅局長 梁甲; 네.

○李成浩 委員; 문제는 서울시가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건교부를 얼마나 설득하느냐의 문제이지요, 사실은.

○住宅局長 梁甲;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것은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각 구에 만약에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지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전구에서 전부 여기 저기서 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현안으로 5개를 말씀하셨으니깐요, 제가 이것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成浩 幹事, 崔明玉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崔明玉; 李成浩委員님 고맙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아동복지팀장이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은 민원조사담당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들이 다소 격앙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시간은 없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 답변하는 내용이 불성실한 것은 아니지만 도 대체 업무과실이 안되어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질의는 내일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韓植 委員;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明玉;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鄭韓植 委員; 鄭韓植委員입니다.

본위원이 서울지방경찰청 자료검토 결과 용역비도 이월할 수 있습니까? 1999회계년도에서 2000년으로 사고이월한 내역,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용역비도 사고이월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1998회계년도에.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각 회계별로 회계간 전입금 또는 재특기금 차입금, 그 다음에 중앙정부 재특기금을 비롯한 기금차입금, 그 리스트를 뽑아주시고, 다음에 각 회계별, 일반회계 제외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액 예비비, 다음에 연말결산액 예비비 결산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明玉;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9時 26分 散會)

○出席委員

崔明玉 金成浩 白懿宗 高溶振
金奇德 金魯珍 金明洙 金成奎
金聖泰 金鍾來 金周喆 金判吉
羅鍾文 朴來雨 吳世根 劉大運
李成浩 李載震 鄭圭鎭 鄭韓植
趙養鎬 崔鍾德 崔鍾午 崔忠敏
許光泰 黃好淳 明英鎬 朴柱雄
安秉昭 李松竹 林東奎

○專門委員

林頴

○出席公務員

政務副市長 卓秉伍
企劃豫算室長 金禹奭
環境管理室長 金承珪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女性政策官 盧美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水道技術研究所
技術開發部長 李圭星
監查官 全長河
行政管理局長 金在宗
稅務運營課長 朴仁龍
地方稅務7級 金海喆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文化觀光局長 崔頴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建設局長 張錫孝

住宅局長 梁甲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